정책연구자료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5. 11

이태열 · 최영목 · 조혜원
김진억 · 최 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 리 말

보험산업은 자산과 보험료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역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미치면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은 경기, 금융시장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참여 확대, 방카슈랑스 허용,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 등장 등에 의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 보다 유효한 경영 전략 및 전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보험수요와 관련된 경제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수준이 향상될수록 보험수요는 증가하며 나아가 경제주체들이 투자하는 여타의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수요가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고 소비자가 느끼는 리스크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보험상품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듯 복잡한 경제상황에서 한 국가의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녹녹한 작업이 아니다.

이에 이 보고서는 경제상황과 보험소비자들의 니즈를 기초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내년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이 해결해야 될 경영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산업 내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2005년 11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김 창 수

목 차

Ⅰ. 경제 · 금융환경 변화 ····· 1
1. 세계 경제 ····· 1
2. 국내 경제 ····· 7

Ⅱ. 보험제도 변화 ····· 13
1. 새로운 성장의 기회 : 업무영역 확대 ····· 14
2. 판매채널 통합화 및 경쟁 심화 ····· 19
3. 소비자보호 및 감독체계 선진화 ····· 22

Ⅲ. 보험산업 현황 ····· 25
1. 주요지표 동향 ····· 25
2. 생명보험 ····· 27
3. 손해보험 ····· 47

Ⅳ. 보험산업 전망 ····· 64
1. 주요지표 전망 ····· 64
2. 생명보험 ····· 70
3. 손해보험 ····· 83

Ⅴ. 보험산업 주요과제 ····· 109
1. FY2006 보험산업 특징과 평가 ····· 109
2. 주요과제 ····· 112

표 목 차

<표 Ⅰ-1>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4
<표 Ⅰ-2> 2006년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성장률 ····· 8
<표 Ⅰ-3> 2006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9
<표 Ⅰ-4> 2006년 대외거래 전망 ····· 10
<표 Ⅰ-5> 2006년 물가 및 금융변수 전망 ····· 12
<표 Ⅱ-1> 제도설계 및 운영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 ····· 15
<표 Ⅲ-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 25
<표 Ⅲ-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 26
<표 Ⅲ-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Ⅰ) ····· 27
<표 Ⅲ-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Ⅱ) ····· 28
<표 Ⅲ-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 29
<표 Ⅲ-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 30
<표 Ⅲ-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 32
<표 Ⅲ-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 34
<표 Ⅲ-9>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 36
<표 Ⅲ-10>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38
<표 Ⅲ-11>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 40
<표 Ⅲ-12>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 41
<표 Ⅲ-13>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 42
<표 Ⅲ-14>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 44
<표 Ⅲ-15>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 45
<표 Ⅲ-16>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 46
<표 Ⅲ-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48
<표 Ⅲ-1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 49
<표 Ⅲ-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 53
<표 Ⅲ-20>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 54
<표 Ⅲ-21>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 55

<표 Ⅲ-22>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 56
<표 Ⅲ-23> 손해보험 자산운용률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 57
<표 Ⅲ-24>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 58
<표 Ⅲ-25>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 59
<표 Ⅲ-26> 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 60
<표 Ⅲ-27>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 60
<표 Ⅲ-2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 62
<표 Ⅲ-2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 63
<표 Ⅳ-1> FY2006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65
<표 Ⅳ-2> 보험침투도 전망 ····· 67
<표 Ⅳ-3> 1인당 보험료 전망 ····· 67
<표 Ⅳ-4> 생・손보 구성비 전망 ····· 68
<표 Ⅳ-5> FY2006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 69
<표 Ⅳ-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 72
<표 Ⅳ-7>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 74
<표 Ⅳ-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추이 ····· 79
<표 Ⅳ-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 81
<표 Ⅳ-1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 ····· 82
<표 Ⅳ-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84
<표 Ⅳ-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 85
<표 Ⅳ-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87
<표 Ⅳ-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 88
<표 Ⅳ-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89
<표 Ⅳ-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 90
<표 Ⅳ-17>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91
<표 Ⅳ-18>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92
<표 Ⅳ-19>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93
<표 Ⅳ-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94
<표 Ⅳ-21>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 96
<표 Ⅳ-22>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97
<표 Ⅳ-23>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 98

<표 Ⅳ-24>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99
<표 Ⅳ-25>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 100
<표 Ⅳ-26>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101
<표 Ⅳ-27>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102
<표 Ⅳ-28>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103
<표 Ⅳ-29>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104
<표 Ⅳ-3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105
<표 Ⅳ-31>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 106
<표 Ⅳ-3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107
<표 Ⅳ-33> 퇴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10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2
<그림 Ⅰ-2> 선진국 및 신흥시장 주가지수 추이 ····· 6
<그림 Ⅰ-3>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8
<그림 Ⅱ-1>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시행 계획 ····· 20
<그림 Ⅳ-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66
<그림 Ⅳ-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71
<그림 Ⅳ-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73
<그림 Ⅳ-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77
<그림 Ⅳ-5>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 80
<그림 Ⅳ-6>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82
<그림 Ⅳ-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85
<그림 Ⅳ-8>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 86
<그림 Ⅳ-9>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87
<그림 Ⅳ-10>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 88
<그림 Ⅳ-11>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89
<그림 Ⅳ-12>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 ····· 90
<그림 Ⅳ-13>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91
<그림 Ⅳ-14>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92

<그림 Ⅳ-15>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93
<그림 Ⅳ-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95
<그림 Ⅳ-17>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 96
<그림 Ⅳ-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97
<그림 Ⅳ-19>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 98
<그림 Ⅳ-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99
<그림 Ⅳ-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 100
<그림 Ⅳ-22>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101
<그림 Ⅳ-23>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102
<그림 Ⅳ-24>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103
<그림 Ⅳ-25>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104
<그림 Ⅳ-2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106
<그림 Ⅳ-27>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 107
<그림 Ⅳ-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 108
<그림 Ⅴ-1> 변액보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관리 방안 ····· 116

Ⅰ. 경제 · 금융환경 변화

1. 세계 경제

가. 주요 국가에 대한 경기 전망

○ 2005년 세계경제는 고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4.3%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6년에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Globlal Insight, IMF 및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등의 2006년 경기전망에 따르면 미국, 중국, 유로지역의 경제는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며, 일본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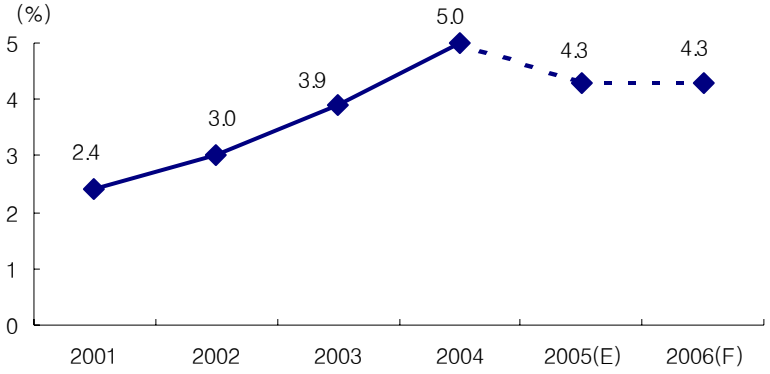
- 미국경제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여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고유가 지속, 허리케인 피해,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표들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소비지출이 증가세를 시현하고 투자와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의 긴축정책과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2006년 경제성장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는 여전히 소비부진 상황이나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엔화 환율의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증가되어 2006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소비지표의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나 유로화의 환율상승이 수출증가세로 이어지는 등 2006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5.

1) 미국

○ 주요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 3.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06년에는 3.3%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그간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 증가세 둔화와 모기지금리 상승 전망에 따라 주택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임.

- 다만, 기업 부문에서 수익증가에 따른 풍부한 자금여력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허리케인 피해의 복구를 위한 투자와 정부지출 증대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2) 중국

○ 중국경제는 지역격차문제나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이 지속되는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2005년 성장률이 9%내외로 추정되며 2006년에는 8%내외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소비수준이 낮은 반면 해외직접투자유입으로 인해 투자수준이 높으며 수출의 비중이 큰 형태의 경제체제로서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연간 8%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한 상황임.

-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으며, 무역흑자로 인해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이 상존하고 있음.

3) 일본

○ 일본경제에 대해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5년 2%내외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2006년에도 회복된 잠재성장률에 힘입어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와 과잉고용 등이 해소되어 이익이 증가하고 투자여력도 확대되었으며 실업률 하락과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가계 부문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여 소비가 위축될 소지도 있음.

3) EU

○ 유럽지역 전체로 볼 때 올해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1.8%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 지배적임.

- 2005년 2/4분기 이후 유로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로 인해 소비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강성노조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Ⅰ-1>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05년(E)	2006년(F)
세 계	4.3	4.3
O E C D	(2.7)	(2.9)
미 국	3.5(3.6)	3.3(3.5)
일 본	2.0(2.4)	2.0(2.0)
E U	1.2(1.4)	1.8(2.1)
독 일	0.8(1.1)	1.2(1.8)
영 국	1.9(1.7)	2.2(2.4)
프 랑 스	1.5(1.6)	1.8(2.1)
중 국	9.0	8.2

주 : 1) IMF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 )안의 수치는 OECD자료임.
2)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5.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 2005.

나. 국제 금융 및 원유 시장

○ 2005년 중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 투자은행들의 2006년 전망치는 달러화 약세가 지배적 의견임.

- 달러화 가치는 2004년 말까지 약세를 지속하다가 FRB의 연속적인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5년 들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음.

- 그러나 허리케인 복구비용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및 지속적인 무역적자 등과 향후 유로지역과 일본의 상대적 경제성장 향상이 가시화될 경우 2006년에는 달러화 약세가 전망됨.

-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치를 평균하면 전망시점(2005년 9월)부터 1년 후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은 각각 111.03과 0.813에서 102.0과 0.779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당국의 지속적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4%대 중후반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정책금리 인상이 일단락되어 장기금리도 횡보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의 미국채권 지속적 매입, 장기채권의 공급 부진 등에 기인하여 장기금리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

- 2005년 미국의 장기국채금리(10년물)는 정책금리의 지속적 인상으로 불구하고 6월 하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10월에는 4.46% 수준이 예상됨.

- Global Insight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일본, 독일의 장기금리는 각각 4.9%, 2.2%, 3.4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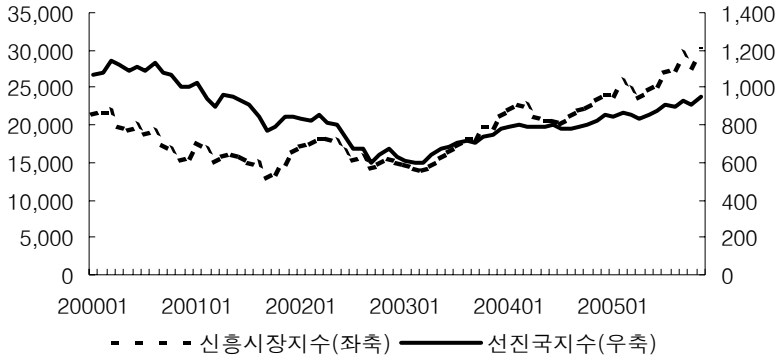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증시는 2003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한 가운데, 2006년 세계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5년 11월말 현재 선진국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신흥시장지수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상승함.

- 최근 지속적인 금리상승 및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증시상승 전망이 우세함.

- 신흥시장과 유럽지역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기업이익이 호전되어 미국시장보다는 높은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2> 선진국 및 신흥시장 주가지수 추이



자료: www.msci.com (Local Currency)

○ 미국의 ESAI와 CERA 등 주요 유가전망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0~56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고성장 및 미국의 경기호조에 기인한 수요급증, 카트리나로 인한 공급차질 등이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할 것임.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5년 4월초 사상 최초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후 11월말에는 53.2달러를 기록함.

- 미국에서 유류 소비 감소 징후가 보이고 중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어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OPEC의 증산여력 고갈과 이라크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불안 가능성이 상존함.

2. 국내 경제

가. 경제 동향 및 전망

○ 2005년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의 증가 등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2005년 GDP성장률은 두 분기 연속 상승하였고 3/4분기에는 4.5%를 나타냄.

-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제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 사업이 속한 서비스업도 증가 추세임.
- <표 I -2>의 지출항목에서 설비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여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그림 I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GDP성장률과 내수부문의 성장률[1]을 비교할 때 내수부문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1) 총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증감 등 내수부문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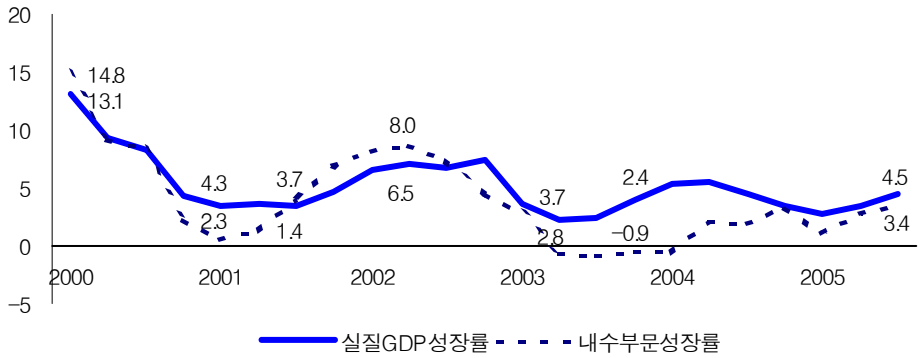
<표 Ⅰ-2> 2006년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성장률

(단위 : %)

	1/4분기	2/4분기	3/4분기
국내총생산(GDP)	2.7	3.3	4.5
농림어업	2.6	4.6	1.8
제조업	5.3	5.2	7.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3	7.3	5.6
건설업	-3.0	1.7	0.6
서비스업	2.2	2.5	3.4
민간소비	1.4	2.8	4.0
설비투자	3.1	2.9	4.2
건설투자	-2.9	1.7	0.4
재화수출	8.1	6.5	13.3
재화수입	3.1	3.6	10.3
내수(재고제외)	1.2	2.7	3.4

주: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2005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5.12.

<그림 Ⅰ-3>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에서 추출

○ 2006년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의 증가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제성장률은 2005년보다 상승한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주식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견실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투자압력이 증가하고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BTL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총수출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내수회복 등에 기인하여 소폭 확대될 전망임.

<표 Ⅰ-3> 2006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E)	2006(F)
실질 GDP	3.1	4.6	3.9	4.6
(경상 GDP)	5.9	7.4	4.8	6.0
민간소비	-1.4	-0.5	3.1	4.4
설비투자	-1.5	3.8	4.4	6.2
건설투자	7.6	1.1	0.1	2.2
총수출	15.6	19.7	8.6	7.4
총수입	10.1	13.8	7.0	7.4

나. 대외 거래

○ 2005년 중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보다 작은 14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05년에는 전통적 수출품목의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수회복 및 유가급등에 따라 수입도 크게 증가함.

○ 2006년도 수출과 수입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서비스 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도 수출은 금년에 비해 12% 증가한 약 3,2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에도 불가하고 높은 유가수준으로 인해 16.2% 증가한 2,98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Ⅰ-4> 2006년 대외거래 전망

구 분	2003	2004	2005(E)	2006(F)
경상수지(억달러)	123.2	276.1	148.3	87.9
상품수지(억달러)	220.9	375.7	296.8	224.0
수출(억달러)	1,976.3	2,577.1	2,866.4	3,209.6
수출 증가율(%)	20.9	30.62	11.7	12.0
수입(억달러)	1,755.4	2,201.4	2,569.6	2,985.6
수입증가율(%)	18.1	25.55	16.8	16.2

다. 물가 및 금융

○ 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 내외로 2005년 추정치(2.7%)보다 증가할 전망임.

- 내년에는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 증대,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담배값 인상 등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전망임.
- 2006년 1/4분기에는 금년 수준에 머물겠으나 2/4분기 이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금리는 콜금리 인상, 정부의 적자 국채발행, 내수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여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기의 회복, 미국과의 금리역전 심화로 국내 금리의 상승압력이 높아져 국고채 3년 금리가 연평균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금리 여건은 국제 금리 상승세와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는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상저 하고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원화 절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원화환율의 급락은 없겠으나 우리나라의 콜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부각될 경우 원화강세가 심화될 전망
- 약한 달러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2006년 중 100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표 Ⅰ-5> 2006년 물가 및 금융변수 전망

구 분	2003	2004	2005(E)	2006(F)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3.6	2.7	3.3
회사채수익률(평균, %)	5.4	4.7	4.8	5.9
국고채수익률(평균, %)	4.6	4.1	4.2	5.5
원/달러(평균)	1191.9	1,144.7	1,030.7	1,007.9
원/엔(평균)	115.9	1,058.8	110.0	110.3

Ⅱ. 보험제도 변화

○ 2006년 보험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더불어 타업종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금융시장 통합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이 중시되고 있음.

- 첫째,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신탁업 겸영 허용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임.
  - · 다만, 퇴직연금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개방된 만큼 상호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둘째,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타업종과의 경쟁 심화 및 채널의 통합화가 가속화될 전망임.
  - · 즉, 방카슈랑스의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설계사의 수익증권 권유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보험산업이 당면하게 될 성장과 경쟁의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
  -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제를 도입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변액보험의 공시를 강화할 예정임.

1. 새로운 성장의 기회 : 업무영역 확대

가. 퇴직연금제도 시행

1) 개요

○ 기존 퇴직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됨.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음.
-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대상을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 잦은 직장 이동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따른 노후 자금 활용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IRA)를 도입할 예정임.

2)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퇴직금일시금 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의 운용방법(원리금보장 상품 1개 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적립금의 60%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및 충실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의무 규정을 두어 수탁자 책임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함.

<표 Ⅱ-1> 제도설계 및 운영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

구분		세부내용	규정
제도설계관련규정	급여제도 설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법제 4조3항
	퇴직금우선변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변제	법제11조2항
	DB형 설정요건	일시금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법제12조4항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법제12조6항 가호
	DC형 설정요건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부	법제13조2항
		매반기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법제13조4항
	운용상품제공	DC형과 IRA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시행령 제9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령제10조
	업무의 위탁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분리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형태로 위탁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 위탁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DB형에 한함)	법제13조 제5호
	중도인출허용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자료: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과제", 『보험동향』, 2005년 가을호, 2005. 9.

3) 퇴직연금제도의 평가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 수급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최저적립기준이 60%로 설정됨에 따라 기업파산시 비적립된 40%에 대한 수급권보장이 미흡함.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되어 있어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로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취약하여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퇴직연금관련 세금공제 혜택이 개인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하였던 240만원에 퇴직연금가입분까지 합쳐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 측면에서의 유인효과가 매우 취약함.
- 퇴직보험 폐지가 5년 유예되었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기업이 많을 가능성이 높음.

나. 보험회사 신탁업 겸영 허용

1) 신탁업법 개정

○ 2005년 6월 29일 신탁업법 일부 조항 개정으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었음.

○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업법시행령 개정(2005년 11월 25일 공포) 내용 및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겸영인가시 적정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신탁회사의 충실의무[2]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유·신탁부문간 거래와 계열회사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을 제한함.

2) 개정 신탁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 신탁업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가시 사업계획 심사항목으로 적정 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요건을 추가함.

-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비율(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상회하여야 함.

---

2) 수탁자가 오로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 자기이익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

○ 일정한 자기자본 및 재무비율을 충족하는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중 부채비율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자기자본채무비율 : 증권사 자기자본 2,500억원·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보험사 자기자본 1,000억원·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 고유부문과 신탁부문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신탁자금 운용시 고유부문의 유가증권 중개를 금지하되, 3억원 이상 거액 특정금전신탁 또는 장내거래주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한도를 계좌별 수탁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함.

○ 신탁겸영 증권·보험회사가 신탁의무 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연간 공탁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0분의 1에서 자본금의 2,500분의 1로 경감함.

○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8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연금형 불특정금전신탁의 보수율을 자율화 함.

○ 퇴직연금신탁에서 고객이 자행예금 운용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탁자금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2. 판매채널 통합화 및 경쟁 심화

가. 교차모집제도 도입

1) 도입 개요

○ 2006년 8월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가 타업종의 1개 보험회사에 한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 제도가 도입·시행될 예정임.

- 소비자의 편의성제고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발생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타업종 보험회사의 선택권을 보험회사와 설계사 중 누가 갖는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음.

2) 교차모집제도의 평가

○ 교차모집 제도의 도입은 수익성 및 영업력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반면, 불완전 판매, 과당 경쟁, 개인정보 악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음.

- 교차모집 제도의 시행은 보험 설계사에게는 일정부분 수익성 제고와 영업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타업종 상품 판매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손보간 유사성이 높은 제3보험 분야에서는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타업종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승환계약유도 등 불공정 판매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방카슈랑스 확대

1) 방카슈랑스 확대 일정

○ 2003년 8월 1단계 저축성 상품을 시작으로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2005년 4월 제 3보험중 소멸성보험에 이어 2006년 10월에는 제3보험 중 환급형 보험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방카슈랑스 허용 일정은 1단계 시행이후 불공정 판매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2005년 허용 일정을 재조정하였음.

- 2008년 4월에는 자동차 및 일반 보장성보험이 포함될 예정이며 단체보험, 해상보험 등은 추후 검토 대상임.

<그림 II-1>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시행 계획

2) 방카슈랑스 확대 평가

○ 2006년 10월 제3보험 중 환급형 보험이 허용될 경우 은행의 보험 판매 영업력이 상당 폭 호전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소비자의 방카슈랑스에 대한 선호도가 순수 보장형보다는 환급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만큼 2005년 4월에 소멸성 제3보험이 허용된 경우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제3보험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전략적 종목인 만큼 시장 잠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4월에 일반보장성과 자동차보험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완전개방되는 만큼 전통 판매채널의 효율성 향상과 판매채널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권유행위 허용 추진

○ 재정경제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내년부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월 22일 밝힘.

-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 등은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음.
- 다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투자상담사도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금융회사 점포나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됨[3].

○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5년 11월 30일 입법예고함.

3. 소비자보호 및 감독체계 선진화

가. 재무건전성 감독 체제의 선진화

1) RAAS 도입

○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도는 리스크감독체제의 핵심과제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의 도입 추진이 예상됨.

※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제1단계(2004) : RAAS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제2단계(2005) : RAAS 운영 실무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
제3단계(2006) : RAAS 시행 및 전산화 추진 완료

---

3) 현재는 간접투자증권은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

2)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

○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AAS 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2007년 시행을 목표로 RBC제도 도입방안을 2006년까지 마련할 예정임.

※ RBC(Risk-based Capital), 2007년 시행

제1단계(2004년말) : 장기적인 제도 도입방향 설정
제2단계(2005년) :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제3단계(2006년) : 新 지급여력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나. 변액보험 관련 제도 정비

1) 변액보험의 성장과 문제점

○ 최근 변액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생명보험의 2005년 4~8월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11.2%에 이르고 있으나 변액보험을 제외한 성장률은 2.1%에 불과하여 변액보험이 성장의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조기 해약시 환급금 관련 민원 발생, 주식에 대한 지나친 투자 확대, 판매시 과다한 수익률 제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2)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향

○ 공시 강화와 더불어 보험으로서의 기본 기능 충실화를 유도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 특별계정상의 투입원금을 공개하여 환급금과 관련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축소하고 과도한 주식 편입 확대를 방지하여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 그러나 투입원금의 공개는 초기 해약시 발생하는 과소 환급금의 원인인 사업비의 공개로 이어져 상품의 매력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

  · 사업비를 축소할 경우 변액보험의 마케팅 여력이 약화되어 변액보험의 성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이 FY2005 생명보험산업 성장의 핵심축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변액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과 그 영향은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Ⅲ. 보험산업 현황

1. 주요지표 동향

가. 수입보험료

○ FY2004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전년 대비 7.2% 성장을 기록함.

- 2005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8% 성장을 기록함.

- 2005년 4~8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인상을 통한 자동차보험이 견조한 성장을 하고, 통합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을 거두어 전년동기 대비 9.8% 성장함.

<표 Ⅲ-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종목 \ 연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4~8
생명보험	516,538	473,643	490,668	503,925	537,506	230,042
	10.5	-8.3	3.6	2.7	6.7	12.8
손해보험	168,617	186,959	206,129	213,782	232,189	102,627
	13.8	10.9	10.3	3.7	8.6	9.8
합 계	685,155	660,602	696,797	717,707	769,695	332,669
	11.3	-3.6	5.5	3.0	7.2	11.7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FY2004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투자영업이익의 확대에 힘입어 양호한 자산 증가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12.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소폭 감소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및 준비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12.9% 성장한 211조 6,098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0% 성장한 43조 4,720억원을 기록함.

○ 2005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과 보험영업수지의 감소와 수입보험료 증가의 상쇄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236조 5,815억원을 기록함.

<표 Ⅲ-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종목 \ 연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8
생명보험	1,207,300	1,430,340	1,642,225	1,873,615	2,116,098	2,212,238
	9.5	18.5	14.8	14.1	12.9	12.7
손해보험	280,490	327,267	353,683	388,229	434,720	450,522
	6.0	16.7	8.1	9.8	12.0	12.0
합 계	1,487,790	1,757607	1,995,908	2,261,844	2,261,844	2,365,815
	8.8	18.1	13.6	13.3	12.8	12.6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 FY20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53조 7,506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고 CY2004 경상 GDP 성장률이 7.4%인 것에 비교하여 견조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3조 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고, 이 수치는 동 기간의 경상가격 GDP 성장률인 3.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에 대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92.5%를 차지하는 개인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7.5%를 차지하는 단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36.3% 증가함.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I)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4~8
국내 경제	경상GDP (10억원)[1]	578,665	622,123	684,264	724,675	778,445	382,260
	증 가 율[2]	9.3	7.5	10.0	5.9	7.4	3.2[3]
생보 산업	보험료(억원)	516,538	473,643	490,668	503,925	537,506	230,042
	증 가 율[2]	10.5	-8.3	3.6	2.7	6.7	12.8

주: 1) GDP는 CY 2000 명목가격 기준을 따르며, 2003년 이후는 잠정 수치임.
2)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3) CY2004 상반기 경상 경제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및 www.bok.or.kr.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Ⅲ-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Ⅱ)

(단위 : 억원, %)

구 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2차년도 이후		합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0	개인	114,739	89.1	92,618	6.7	191,363	12.8	398,721	26.1
	단체	72,999	-25.6	17,113	5.1	27,706	-25.2	117,817	-22.2
	전체	163,180	- 9.7	97,705	0.9	206,669	10.9	467,554	0.8
FY2001	개인	30,495	-73.4	109,520	18.3	237,784	24.3	377,799	-5.2
	단체	49,945	-31.6	19,078	11.5	26,821	-3.2	95,844	-18.7
	전체	80,440	-57.2	128,598	17.2	264,605	20.8	473,643	-8.3
FY2002	개인	29,688	-2.5	100,710	-8.0	285,095	19.9	415,493	10.0
	단체	24,980	-50.0	18,946	-0.9	31,248	16.5	75,175	-21.6
	전체	54,668	-32.0	119,656	-7.0	316,343	19.6	490,668	3.6
FY2003	개인	53,625	80.6	91,438	-9.2	302,098	6.0	447,161	7.6
	단체	10,758	-56.9	8,476	-55.3	37,530	20.1	56,764	-24.5
	전체	64,383	17.8	99,913	-16.5	339,629	7.4	503,925	2.7
FY2004	개인	55,101	2.8	103,031	12.7	322,008	6.6	480,140	7.4
	단체	11,752	9.2	5,293	-37.6	40,321	7.4	57,366	1.1
	전체	66,853	3.8	108,324	8.4	362,329	6.7	537,506	6.7
2005. 4~8	개인	21,741	10.9	48,129	16.4	142,828	9.6	212,698	11.2
	단체	6,477	164.7	1,332	-8.9	9,535	8.2	17,344	36.3
	전체	28,218	28.0	49,461	15.6	152,363	9.5	230,042	12.8

주: 1)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2) 단체보험은 특별계정에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8.9%, 생존보험 24.4%, 생사혼합보험 16.0%, 단체보험 10.7%인 것으로 나타남.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기타 단체보험, 퇴직보험의 구성비는 하락세를 보임.
- 사망보험의 증가는 저금리지속과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변액보험을 포함한 종신보험의 증가가 가속화된 데 기인함.

○ 2005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생사혼합은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냄.

- 동 기간 중 사망보험의 점유율은 전체의 49.0%, 생존보험은 24.6%, 생사혼합보험은 18.9%, 단체보험은 7.5%를 나타냄.
- 하락 추세를 지속했던 생사혼합보험의 점유율 반등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으로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생존	사망	생사혼합	개인계	퇴직	일반단체	단체계
FY2002	18.6	43.5	22.5	84.7	9.7	5.6	15.3
FY2003	23.9	46.0	18.8	88.7	7.7	3.6	11.3
FY2004	24.4	48.9	16.0	89.3	7.5	3.1	10.7
2005.4~8	24.6	49.0	18.9	92.5	5.0	2.6	7.5

<표 Ⅲ-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4~8
개인보험	생존보험	108,661	74,955	91,424	120,375	131,368	56,528
		11.1	-31.0	22.0	31.7	9.1	10.6
	사망보험	125,393	174,334	213,677	231,844	262,971	114,018
		24.8	39.0	22.6	8.5	13.4	7.9
	생사혼합	164,667	128,510	110,392	94,942	85,801	42,152
		39.8	-22.0	-14.1	-14.0	-9.6	22.3
	소 계	398,721	377,799	415,493	447,161	480,140	212,698
		26.1	-5.2	10.0	7.6	7.4	11.2
단체보험	일반단체	67,985	38,112	27,393	18,013	16,891	5,942
		-32.6	-43.9	-28.1	-34.2	-6.2	-16.4
	퇴직보험	49,832	57,733	47,781	38,751	40,474	11,402
		-1.5	15.9	-17.2	-18.9	4.4	103.0
	단체보험계	117,817	95,844	75,175	56,764	57,366	17,344
		-22.2	-18.7	-21.6	-24.5	1.1	36.3
합계		516,538	473,643	490,668	503,925	537,506	230,042
		10.5	-8.3	3.6	2.7	6.7	12.8

주: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48조 140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1% 증가한 5조 7,366억원을 기록함.

-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6조 2,971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성장세를 회복함.

- 생존보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13조 1,36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FY2002 22.0%, FY2003 31.7%의 높은 증가율에 비교할 경

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임.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경쟁력 상실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세가 FY2001 이후로 계속되는 가운데 FY2004에 전년 대비 9.6% 감소한 8조 5,801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함.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퇴직보험의 수요 증가와 일반단체보험 감소 추세가 약화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5조 7,36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마이너스 성장세를 반전하는 계기를 마련함.

○ 2005년 4~8월 중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한 21조 2,698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6.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1조 7,344억원을 기록함.

- 변액종신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의 성장세는 감소해 7.9%의 성장을 보인 반면 생존보험은 변액연금의 성장으로 10.6%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간접투자시장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2.3%의 성장을 기록함.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2004 하반기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퇴직보험이 크게 증가(103%)하여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6.3% 높은 성장을 기록함.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4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사의 비중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3보다 3.5%p 감소한 68.5%를 기록하여 70%를 하회하였음.

- 일부 국내 중소형사의 경영실적 반전과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의 선전, 그리고 외국사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FY2003보다 각각 0.6%p, 2.9%p 상승한 15.0%, 16.5%로 나타남.

○ 2005 4~8월 중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외국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8%p가 감소한 66.4%를 기록함.

-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등의 신채널 중심의 전문 보험사들의 선전과 일부 우량 외국사의 견실한 성장으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됨.

<표 III-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 도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FY2000	80.9	13.4	5.7
FY2001	78.0	14.0	8.0
FY2002	75.8	13.7	10.5
FY2003	72.0	14.4	13.6
FY2004	68.5	15.0	16.5
2005. 4~8	66.4	15.3	18.3

주: 외국사는 지분인수 기준일로 구분하였음. 2005년 8월말 기준 현재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하나, 뉴욕, PCA, SH&C가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계약현황

1) 신계약

○ FY2004 신계약액은 사망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신계약금액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5.6%가 증가한 327조 9,541억원을 기록함.

- 전통적 생존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보험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또한 일부 전통적 생존보험의 수요도 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25조 9,179억원을 보임.
- 사망보험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 감소한 251조 53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감소 추세는 둔화됨.
- 생사혼합보험의 신계약액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44.1% 증가한 22조 7,691억원을 기록함.
- 단체보험의 신계약액은 퇴직보험의 수요 반등과 일반단체보험의 신계약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60.0% 증가한 28조 2,139억원을 기록함.

○ 2005년 8월말까지의 생명보험 신계약액을 보면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감소의 상쇄로 인하여 생명보험 전체 신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하였음.

- 장기저축성상품인 연금상품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개인연금보험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함.

- 주식시장의 성장이 지속되어 시중자금이 펀드에 집중됨에 따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퇴직보험의 수요가 확대되어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의 신계약액이 전년동기 대비 107.0%, 162.1% 각각 증가함.

- 사망보험 신계약액은 종신보험의 성장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동기 대비 19.0% 감소함.

- 사망보험의 신계약이 개인보험에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으로 점유율이 감소함(사망보험 점유율 2004년 8월말 85.5% → 2005년 8월말 77.7%, 생사혼합보험 점유율 2004년 8월말 5.2% → 2005년 8월말 12.0%).

<표 Ⅲ-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2000	383,102	1,813,111	559,759	269,272	3,025,244
	27.5	13.2	42.1	-25.4	13.9
FY2001	255,110	2,901,231	224,250	208,931	3,589,522
	-33.4	60.0	-59.9	-22.4	18.7
FY2002	318,493	2,597,024	167,007	190,352	3,272,876
	24.8	-10.5	-25.5	-8.9	-8.8
FY2003	233,475	2,537,848	157,970	176,368	3,105,661
	-26.7	-2.3	-5.4	-7.3	-5.1
FY2004	259,179	2,510,532	227,691	282,139	3,279,541
	11.0	-1.1	44.1	60.0	5.6
2005.4~8	110,096	834,521	128,981	208,691	1,282,289
	-2.2	-19.0	107.0	162.1	-0.2

주: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보유계약

○ FY2004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8.9% 증가한 1,308조 4,35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 8월말에는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1,345조 8,416억원을 기록함.

○ 2005년 8월말 현재 보유계약액 기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신계약의 감소와 단체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0.7%p, 0.5%p 감소한 11.6%, 76.9%를 각각 차지함.

- 생사혼합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생사혼합보험 신계약액의 큰 폭 증가에도(107.0%) 불구하고 단체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0.1%p 소폭 증가한 5.8%를 나타냄.
- 단체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단체보험 신계약의 큰 폭 증가에(162.1%)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1%p 증가한 5.7%를 차지함.

<표 Ⅲ-9>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2000	금 액	1,535,770	5,125,671	1,034,540	592,352	8,288,333
	증가율	4.5	23.2	33.4	-10.0	17.3
	비 중	18.5	61.8	12.5	7.1	100.0
FY2001	금 액	1,538,750	7,067,857	970,612	579,688	10,156,906
	증가율	0.2	37.9	-6.2	-2.1	22.5
	비 중	15.1	69.6	9.6	5.7	100.0
FY2002	금 액	1,590,804	8,305,323	862,663	578,618	11,337,408
	증가율	3.4	17.5	-11.1	-0.2	11.6
	비 중	14.0	73.3	7.6	5.1	100.0
FY2003	금 액	1,513,500	9,211,881	738,275	548,680	12,012,337
	증가율	-4.9	10.9	-14.4	-5.2	6.0
	비 중	12.6	76.7	6.1	4.6	100.0
FY2004	금 액	1,545,966	10,126,018	738,074	674,298	13,084,355
	증가율	2.1	9.9	-0.03	22.9	8.9
	비 중	11.8	77.4	5.6	5.2	100.0
2005. 4~8	금 액	1,572,203	10,343,906	779,644	762,662	13,458,416
	증가율	2.5	7.5	10.5	32.5	8.2
	비 중	11.6	76.9	5.8	5.7	100.0

주: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다. 수지현황

1) 지급보험금

○ FY2004 보험금은 생존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35.7% 증가하였으나 생사혼합보험(-21.1%)과 퇴직보험(-13.5%)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6% 감소한 8조 1,644억원을 기록함.

- 사망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전년 대비 각각 3.6%, 1.1% 증가한 1조 2,712억원과 5,233억원을 기록함.

○ 2005년 4~8월 중 보험금은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33.1%가 증가하여 4조 26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 동 기간 중 개인보험 보험금은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34.8%, 16.3%, 54% 증가함에 따라 42.9% 증가한 2조 6,331억원을 기록함.

- 단체보험 보험금은 퇴직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한 1조 3,936억원을 기록함.

○ FY2004 환급금은 개인보험이 10.2%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31.8% 감소하여 전년 대비 4.8%의 증가를 기록함.

- 2005년 4~8월 중 환급금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2.3%, 37.6%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6% 증가함.

<표 Ⅲ-10>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FY2000	개인	52,470	67.1	167,350	-6.8	4,731	-3.3	224,551	4.0
	단체	42,353	-6.7	124,202	3.0	1,364	20.3	167,919	0.4
	전체	94,823	23.5	291,551	-2.9	6,096	1.1	392,471	2.5
FY2001	개인	43,656	-16.8	178,787	6.8	4,854	2.6	227,297	1.2
	단체	31,646	-25.3	83,914	-32.4	671	-50.8	116,231	-30.8
	전체	75,302	-20.6	262,701	-9.9	5,525	-9.4	343,528	-12.5
FY2002	개인	43,219	-1.0	165,246	-7.6	3,732	-23.1	212,197	-6.6
	단체	26,309	-16.9	55,404	-34.0	270	-59.7	81,983	-29.5
	전체	69,528	-7.7	220,650	-16.0	4,002	-27.6	294,180	-14.4
FY2003	개인	60,170	39.2	190,849	15.5	4,535	21.5	255,554	20.4
	단체	33,257	26.4	28,270	-49.0	313	16.0	61,840	-24.6
	전체	93,427	34.4	219,119	-0.7	4,848	21.1	317,394	7.9
FY2004	개인	52,108	-13.4	210,369	10.2	4,590	1.2	267,067	4.5
	단체	29,536	-11.2	19,277	-31.8	346	10.5	49,159	-20.5
	전체	81,644	-12.6	229,646	4.8	4,936	1.8	316,226	-0.4
2005. 4~8	개인	26,331	42.9	85,176	2.3	1,665	-13.9	113,173	9.2
	단체	13,936	17.8	8,105	37.6	124	-33.3	22,166	23.8
	전체	40,268	33.1	93,281	4.6	1,790	-15.6	135,339	11.4

주: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수지차

○ FY2004 당기손익은 투자영업이익과 보험영업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2.6% 증가한 2조 1,051억원을 시현함.

- 보험영업이익은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수익의 증가와 사업비율의 상승으로 인한 보험영업비용의 증가효과가 상쇄하여 소폭의 증가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채권금리의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매각 이익과 평가이익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0조 7,412억원을 기록함.

- 법인세와 준비금전입액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원인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지의 경우 그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은 증가함.

○ 2005년 8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4조 1,943억원 감소한 6,805억원을 기록함.

- 동 기간 중 보험영업수지는 보험금과 신계약비상각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보험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2.1% 감소한 3조 8,459를 기록함.

- 동 기간 중 투자영업수지는 투자영업비용은 투자영업수익이 악화되고 투자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7% 감소한 3조 9,897억원을 기록함.

<표 Ⅲ-11>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수지차	총수지차	당기순이익
FY2000	40,734	80,839	-6,085
FY2001	59,267	121,079	17,228
FY2002	120,581	195,920	28,320
FY2003	98,356	171,078	15,874
FY2004	101,395	194,232	21,051
2005.4~8	38,459	80,930	6,805

주: 1) 보험수지차는 특별계정을 포함함.
2)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신계약・유지・수금비)
3) 총수지차 및 당기순이익은 일반계정임.
4)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 10.

라. 자산운용 현황

1) 총자산 규모

○ FY2004 생명보험회사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이익과 보험영업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9% 성장한 211조 6,098억원을 기록함.

- 2005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수지와 보험영업수지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한 221조 2,238억원을 기록함.

<표 Ⅲ-12>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총 자 산	운용자산*	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수익률(%)	
				총 자 산	운용자산
FY2000	1,207,300	998,133	83,152	8.5	8.9
FY2001	1,430,340	1,164,981	92,351	8.5	8.9
FY2002	1,642,225	1,326,366	105,700	8.5	8.9
FY2003	1,873,615	1,520,232	118,707	8.3	8.7
FY2004	2,116,098	1,685,303	129,822	8.0	8.4
2005.4~8	2,212,238	1,763,602	49,225	6.6	7.0

주: * 표시는 일반계정의 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FY2004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지속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저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한 8.4%를 기록함.

- 2005년 4~8월 운용자산 수익률은 전년에 이어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채권운용수익률 하락과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p 감소한 7.0%를 기록함.

2)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4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구하면서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장단기 운용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냈음.

○ 2005년 8월말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3.6%로 전년동기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은 20.5%로 2.6%p 감소하였음.

- 이는 보험회사가 유가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투자를 확대하고 가계부채 심화 등 신용불안 확대의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보유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임.

<표 III-13>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8
운용자산	현・예금	3,701	2,684	3,256	3,180	3,012	3,290
		3.1	1.9	2.0	1.7	1.4	1.5
	유가증권	48,271	63,865	76,797	94,665	111,268	118,513
		40.0	44.6	46.8	50.5	52.6	53.6
	- 채권	24,937	36,356	48,906	57,538	71,984	76,058
		20.7	25.4	29.8	30.7	34.0	34.4
	- 주식	5,674	8,238	5,496	8,893	9,394	10,346
		4.7	5.8	3.3	9.4	4.4	4.7
	- 기타	17,660	19,271	22,396	28,234	29,890	32,109
		14.6	13.5	13.6	10.4	14.1	14.5
	대출	38,342	40,690	43,544	45,125	45,306	45,430
		31.8	28.5	26.5	24.1	21.4	20.5
	부동산	9,500	9,258	9,039	9,052	8,944	9,128
		7.9	6.5	5.5	4.8	4.2	4.1
	소계	99,813	116,498	132,637	152,023	168,530	176,360
		82.7	81.5	80.8	81.1	79.6	79.7
비운용자산		12,846	15,782	18,458	20,574	24,426	24,079
		10.6	11.0	11.2	11.0	11.5	10.9
특 별 계 정		8,071	10,754	13,128	14,764	18,654	20,784
		6.7	7.5	8.0	7.9	8.8	9.4
총 자 산		120,730	143,034	164,223	187,362	211,610	221,2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하단의 수치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현・예금에는 신탁, 예치금 등을 포함, 기타유가증권에는 수익증권, 출자금, 해외유가증권 등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마. 경영효율

○ FY2004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0.6%p 감소된 59.7%를 기록함.

- 2005년 8월말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의 높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2%p 증가된 60.1%를 기록함.

○ 실효해약률은 FY2004 효력상실해약액의 감소로 인하여 14.2%를 기록하여 FY2001 수준으로 낮아짐.

- 2005년 8월말 보험회사들의 실효해약률은 영업효율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6%p 감소한 5.3%를 기록함.

○ 2005년 8월말 현재 특별계정을 제외한 총자산에서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자산운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한 88.0%를 기록함.

○ FY2004 생명보험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의 경우 실효해약률 감소로 전년 대비 5.5%p 상승한 79.1%를 기록함.

- FY2004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노력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개선됨.

-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FY2002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4는 전년 대비 4.2%p 감소한 58.4%를 기록함.

○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인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우량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노력으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한 33.7%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으로 생보사는 보험설계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방카슈랑스 비중이 증가함.

<표 Ⅲ-14>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보험금지급률		75.9	72.5	59.1	61.3	59.7	60.1
실효해약률		16.0	14.1	14.8	16.1	14.2	5.3
자산운용률*		88.6	88.1	87.8	88.1	87.3	88.0
유지율	13회차	71.4	79.0	79.3	73.6	79.1	-
	25회차	54.0	59.6	65.7	62.6	58.4	-
설계사정착률(13)		22.4	28.8	31.2	31.2	33.7	-

주: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2) 실효해약률 = 효력상실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3) 유지율 = 유지계약액/신계약액
4) *는 일반계정의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 판매채널

○ FY2004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비중이 증가한 반면 보험설계사 채널은 감소세를 이어감.

- 이는 일시납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납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월납 중심의 다른 채널과의 수평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음.

-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적극적 판매전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p 감소한 37.3%를 기록하면서 비중 감소세를 이어감.

- 또한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인대리점이 퇴조하고 대형 법인대리점의 증가세가 이어짐.

<표 III-15>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회사직급	34.2	55.7	46.0	9.9	7.4	5.0
보험설계사	62.9	41.6	45.8	40.0	37.3	36.0
대리점	2.9	2.6	7.0	7.4	8.2	8.8
중개인	-	-	-	0.0	-	-
T/M	-	-	-	2.6	-	-
C/M	-	-	-	0.1	-	-
방카슈랑스	-	-	-	39.7	46.7	50.2
기타	0.0	0.1	1.3	0.3	0.4	0.0

자료: 생명보험협회,『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2005. 8월말 현재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동기간 대비 8%p 증가한 50.2%를 기록한 반면 회사직급과 설계사에 의한 판매 비중은 3.8%p, 5.6%p 감소한 5.0%, 36.0%를 각각 나타냄.

-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확대에 의한 영향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설계사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계속적인 감소가 이어짐.

- 보험회사의 우량 설계사 조직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방카슈랑스 등의 신채널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FY2004에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강세가 이어지고 우량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수, 대리점의 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짐.

- 전통 채널 중심의 구조조정 노력과 완전판매 노력 등과 같은 영업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인하여 설계사 정착율과 계약유지율은 상승하였음.

○ FY2004 생명보험의 모집조직 규모는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전 모집조직이 감소하였음.

- 대형사의 경우 대리점수과 임직원수 모두를 감소시켰으며 외국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수는 증가시키고 대리점수는 감소시킴.

- 중소형사는 임직원수를 줄이면서 대리점수를 증가시킴.

<표 Ⅲ-16>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회사직급	31,851	28,572	26,726	26,172	25,412	25,281
	-10.7	-10.3	-6.5	-2.1	-2.9	-3.8
보험설계사	214,793	171,505	151,064	143,498	136,947	131,053
	-11.0	-20.2	-11.9	-5.0	-4.6	-9.8
대리점	6,017	7,001	7,267	7,211	6,672	6,761
	-22.8	16.4	3.8	-0.8	-7.5	-5.2

주: 하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 FY200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견조한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8.6%의 성장률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및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인상 효과로 인하여 7.0% 성장하였음.

- 장기손해보험은 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기여하였음.

  · 장기손해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에 대한 꾸준한 수요 확대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성장함.

-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특종보험은 종합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높은 성장을 나타낸 반면,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은 요율인하, 경기불황 등으로 전년 대비 성장이 감소하였음.

○ 2005년 4~8월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원수보험료 10조 2,627억원으로 1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임.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세 지

속 및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1.9% 성장에 그침.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전년동기 대비 2.7%p 증가한 43.4%에 이르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특종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표 Ⅲ-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국내 경제	GDP(10억원)[1]	578,665	622,123	684,264	724,675	778,445	382,260
	증 가 율	9.3	7.5	10.0	5.9	7.4	3.2
손보 산업	보 험 료[2]	168,617	186,959	206,129	213,782	232,189	102,627
	증 가 율	13.8	10.9	10.3	3.7	8.6	9.8

주: 1) CY 기준(2000년 기준 경상가격)이며, 2003.4～8은 2/4분기 누적수치임.
2) FY1999부터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임.
3) 부수사업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종목별 원수보험료

○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증가추세인 반면,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

  · 2005년 4～8월간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43.4%, 자동차보험은 35.2%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에서는 특종보험이 성장률, 점유율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시장은 정체되어 있음.

<표 Ⅲ-1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2005. 4 ~ 8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화 재	2,937	-7.1	1.3	1,298	5.7	1.3
해 상	5,071	-3.3	2.2	2,406	7.0	2.3
자 동 차	85,208	7.0	36.7	36,121	1.9	35.2
보 증	9,018	-4.3	3.9	3,848	-0.5	3.7
특 종*	21,181	13.0	9.1	9,902	13.5	9.6
장 기	96,353	12.3	41.5	44,576	15.8	43.4
개인연금	6,799	-1.1	2.9	2,824	-1.7	2.8
퇴직보험	5,622	13.6	2.4	1,651	78.5	1.6
합 계	232,189	8.6	100.0	102,627	9.4	100.0

주: 1) *는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 권원보험의 합계임.
2) 부수사업이 제외된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자동차보험

○ FY2004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조 5,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의 성장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시장은 최근 4년간 저성장 추세였으나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11월 기본보험료 인상 등에 기인하여 다시 상승추세를 보임.

○ 그러나, 2005년 4~8월 자동차보험은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효과가 상쇄되고,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지속 및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1.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나) 장기손해보험

○ FY2004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보험, CI보험 등 신상품 판매 등 상해 및 질병부문의 수요 확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 성장한 9조 6,353억원을 나타냄.

-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상해부문 20.7%, 질병 15.5%, 저축성 18.7%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상해 88.0%, 저축성 120.4% 급증하였음.

- 상해부문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통합형보험 성장에 기인하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저축/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운전자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7% 성장하고 재물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4.5% 성장하는 등 정체된 수준을 나타냈음.

○ 2005년 4～8월에도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15.8% 성장한 4조 4,576억원을 나타냄.

- FY2004와 마찬가지로 상해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재물 및 운전자보험은 저성장세를 지속함.

○ FY2004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799억원으로 -1.1%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은 2.9%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5년 4～8월 개인연금보험은 2,824억원으로 -1.7% 성장하여 FY2004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점유율 또한 하락세를 나타냄.

다) 보증보험

○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4 9,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성장하였으며, 2005년 4～8월의 경우에도 성장률 -0.5%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자제되고 카드사 부실이 처리되면서 그 동안 급성장했던 신용카드 신용보험 시장 성장이 급감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지속에 따라 소액대출보증보험 등의 성장이 감소하였으나, 보증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은 견조한 성장을 나타내었음.

라) 일반손해보험

○ 화재보험은 FY2004 -7.1%의 성장률, 2,937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으며, 화재보험 수요가 종합보험으로 이전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가속화되었음.

- 2005년 4～8월에는 2005년 5월 보험료 인상, 개별할인할증(SRP) 재정비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성장한 1,298억원을 기록함.

○ FY2004 해상보험은 손해율 안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 항공보험의 국내 부보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 성장한 5,071억원을 나타냄.

- 2005년 4～8월에 들어서는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 대비 7.0% 성장하는 등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됨.

○ 특종보험의 경우, FY2004 종합보험, 상해보험 등 대부분 종목에서의 성장세에 기인하여 13.0% 성장한 2조 1,181억원을 기록함.

- 종목별로는 특종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종합보험의 경우 5.9% 성장하였으며, 기술보험 31.1%, 상해보험 27.1%, 책임보험 8.4%의 성장률을 나타냄.

-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05년에도 지속되어 2005년 4~8월 13.5%의 성장률로 9,902억원을 시현함.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4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1%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음.

- 이는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판매가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시장 확대를 감안할 때 일반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에도 대형사 및 중소형사간의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 8월말 현재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6%로 증가하였음.

○ 한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8월 3.8%까지 축소되었는데, 이는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기인하여 FY2004 1.2%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1.3%를 나타냄.

<표 Ⅲ-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도	상위 4사	중소형사	일반사계	전업사	외국사
FY2000	68.0	27.9	95.9	3.7	0.4
FY2001	68.2	27.3	95.5	3.9	0.6
FY2002	70.0	24.6	94.6	4.7	0.7
FY2003	70.6	24.6	94.6	4.7	0.7
FY2004	71.1	23.1	94.8	4.0	1.2
2005. 4~8	71.6	23.3	94.9	3.8	1.3

주: 1) 일반사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 등 5개사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수지상황

1) 수지차

○ FY2004 전체 손해보험회사는 1조 6,044억원의 총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음.

- FY2004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은 9,616억원, 보증보험회사는 5,134억원을 나타내면서 전년도 이익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일반 손해보험회사는 FY2000 이후 보험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투자영업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임.

- FY2004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7,519억원 적자를 나타

내었으며, 투자영업 부문에서는 전년도 보다 2,868억원 증가한 1조 7,136억원 흑자 규모를 기록함.

- 2005년 4～8월에도 보험영업이익은 1,364억 적자를 시현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6,477억원을 나타내었음.

○ 한편, 보증보험회사는 투자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보험영업이익에서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표 Ⅲ-20>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FY2000	-12,628	550	-12,174	7,091	345	7,826	-5,537	895	-4,347
FY2001	-5,967	-6,920	-13,044	15,396	1,099	17,128	9,429	-5,819	4,084
FY2002	-4,090	3,859	210	11,127	-2,828	8,860	7,038	1,030	9,057
FY2003	-8,233	2,484	-5,953	14,268	-66	14,951	6,036	2,417	8,998
FY2004	-7,519	3,575	-3,414	17,136	1,558	19,451	9,616	5,134	16,044
2005. 4~8	-1,364	1,781	1,005	6,477	4,645	7,270	5,112	2,245	8,275

주: 1)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반영한 수치이며, 전사 실적에는 재보 및 외국사 실적이 포함되었음.
2) 교원나라와 다음다이렉트 보험의 실적은 제외됨.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2005. 9.

2) 당기순이익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1,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2% 증가하였으며, FY2001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한 보험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규모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임.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은 16조 6,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원수보험료 성장률 8.6%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2005년 4~8월에는 자동차보험 사고율 증가,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 대비 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FY2004 사업비는 4조 7,884억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1.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표 III-21>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발생손해액	123,027	131,685	134,670	155,539	166,068	70,657
	31.9	7.0	2.3	15.5	6.8	8.7
사 업 비	37,805	42,400	47,032	47,203	47,884	20,179
	5.8	12.2	10.9	0.4	1.4	8.3
당기순이익	-8,166	2,183	3,249	5,635	11,394	5,849

주: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총자산

1) 총자산 현황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43조 4,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2005년 8월 현재 45조 52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0% 증가함.

- 이와 같이 10%를 상회하는 자산 증가율은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준비금 적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Ⅲ-22>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8
총자산	280,490	327,267	353,683	388,229	434,720	450,522
	6.0	16.7	8.1	9.8	12.0	12.0

주: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산효율

○ FY2004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률은 86.1%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86.0%로 나타남.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의 자산운용률은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형사는 83.7%, 외국사는 76.3%로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총자산수익률은 FY2004 6.3%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고, 2005년 4~8월에는 5.1%로 축소되었음.

- 이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투자환경 악화와 FY2004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에 기인하는 것임.

-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매입한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대폭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운용자산수익률은 FY2004 7.4%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2005년 4~8월에는 6.1%를 나타내었음.

<표 III-23> 손해보험 자산운용율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자산운용율 1)		80.7	84.5	85.3	86.4	86.1	86.0
수익률	총자산	6.6	7.8	6.4	6.4	6.3	5.1
	운용자산	8.4	9.5	7.8	7.6	7.4	6.1

주: 1) 자산운용율은 퇴직보험이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5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채권 비중이 FY2004 34.3%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고, 2005년 8월 현재 36.5%로 더욱 확대되었음.

- 이 밖에 2004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2005년 4~8월 주식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고 대출채권의 비중은 17%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점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5년 8월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6.0%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말 대비 3.0%p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24>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8
현·예금 등	28,086	21,483	20,300	18,434	18,437	17,345
	10.0	6.6	5.7	4.7	4.4	3.8
유가증권	126,478	171,917	182,821	205,462	231,938	250,340
	45.1	52.5	51.7	52.9	53.4	56.5
- 주 식	17,427	28,241	17,900	29,044	28,866	32,416
	6.2	8.6	5.3	7.5	6.9	7.2
- 채 권	74,865	97,620	122,732	124,573	149,141	164,664
	26.7	29.8	35.3	32.1	34.3	36.5
- 수익증권	23,751	29,217	17,295	21,124	22,145	23,762
	8.5	8.9	4.9	5.4	5.1	5.3
- 기 타	10,435	16,839	24,894	30,721	31,786	29,498
	3.7	5.1	6.2	7.9	7.3	6.5
대출채권	38,159	45,907	58,569	67,888	76,673	78,586
	13.6	14.0	16.6	17.5	17.6	17.7
부 동 산	28,639	31,019	31,232	32,489	33,760	34,456
	10.2	9.5	8.8	8.4	8.1	7.8
운용자산	221,362	270,326	292,921	324,273	360,809	380,726
	78.9	82.6	82.8	83.5	83.0	86.0
비운용자산	52,928	49,426	50,531	51,176	58,276	62,178
	18.9	15.1	14.3	13.2	13.4	14.0
특별계정	6,200	7,515	10,231	12,780	15,635	15,335
	2.2	2.3	2.9	3.3	3.6	3.5
총 자 산	280,490	327,267	353,683	388,229	434,720	450,5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FY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경영효율

○ FY2004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100.8%, 2005년 4～8월의 경우 98.3%로 나타나 보험영업 효율성이 제고되는 추세임.

- FY2004에는 사업비율의 하락으로 합산비율이 개선되었던 반면, 2005년 4～8월에는 전 종목에서의 손해율 개선으로 합산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5>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경과손해율	82.4	80.9	72.9	77.6	77.7	76.2
사업비율	24.9	26.0	25.5	24.3	23.1	24.3
합산비율	106.9	106.8	98.4	101.9	100.8	98.3

주: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FY2004에는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의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증가액 증가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한 87.9%를 보임.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0%p 감소한 72.7%의 손해율을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태풍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음.

- 보증보험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보증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등 언더라이팅 강화 정책에 따른 손해율 관리로 안정적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Ⅲ-26> 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전체 손해보험	82.4	80.9	72.9	77.6	77.7	76.2
보증보험제외	82.6	76.3	74.3	79.2	79.7	78.0
보증보험	79.5	208.3	42.0	44.1	25.3	26.8

주: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Ⅲ-27>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화재보험	67.1	51.1	54.3	61.7	56.4	41.5
해상보험	46.4	46.0	51.6	57.7	49.5	46.0
자동차보험	73.2	67.6	68.4	76.7	72.7	72.6
보증보험	79.5	208.3	42.0	44.1	25.3	26.8
특종보험	56.8	53.8	47.5	57.8	52.0	43.2
해외원보험	78.9	57.8	50.4	47.5	41.0	36.1
장기보험	90.9	84.2	81.5	82.4	87.9	85.7
개인연금	118.4	117.8	118.7	121.8	123.8	118.5
전 체	82.4	80.9	72.9	77.6	77.7	76.2

주: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FY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월말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의 손해율 개선 추세는 FY200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2005년 4~8월 76.2%로 전년말 대비 1.5%p 감소하였음.

-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은 전년도 손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의 경우 보험료 성장에 기인하여 손해율이 다소 하락한 수준을 나타냄.

마. 판매채널

○ FY2004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T/M 및 C/M 등 신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 등 전통채널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즉, 방카슈랑스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면서 FY2003 0.4%에서 2.0%로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T/M 및 C/M 등 온라인 채널의 점유율은 2.5%에서 3.0%로 증가함.

- 반면, 보험설계사 비중은 35.5%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대리점은 49.7%로 0.9%p 감소하였음.

○ 이러한 추세는 FY200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손해보험에서도 새로운 판매채널이 점유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2005년 4~8월간 점유율이 3.1%로 확대되었으며, 온라인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직급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35.7%를 나타내고, 대리점의 경우 전년평균 대비 2.3%p 감소한 47.4%를 보임.

<표 Ⅲ-2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회사직급	12,273	16,723	22,179	19,323	18,559	12,331
	7.4	9.1	11.0	9.3	8.2	12.2
보험설계사	78,619	72,880	74,411	74,465	80,439	36,070
	47.7	39.6	36.9	35.7	35.5	35.7
대 리 점	72,209	92,035	102,932	105,607	112,552	47,882
	43.8	50.0	51.1	50.6	49.7	47.4
중개인	-	-	-	1,791	2,123	1,091
	-	-	-	0.8	0.9	1.1
T/M	-	-	-	3,901	5,445	-
	-	-	-	1.9	2.4	-
C/M	-	-	-	1,168	1,426	-
	-	-	-	0.6	0.6	-
방카슈랑스	-	-	-	813	4,538	3,091
	-	-	-	0.4	2.0	3.1
공동인수	1,693	2,384	2,019	1,727	1,468	511
	1.0	1.3	1.0	0.7	0.6	0.5

주: 1) 각 하단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생산성(모집조직당 원수보험료)은 모집조직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FY2003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1인당 원수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과 더불어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채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설계사의 경우 FY2004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라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임.

- FY2004 대리점 생산성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리점 수 축소에 기인하는 것임.

<표 Ⅲ-2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 4~8
임 직 원	53.1	77.6	106.2	91.1	84.3	49.9
	-0.2	46.3	36.8	-14.1	-7.5	31.7
보험설계사	114.1	127.7	137.1	123.7	130.7	55.3
	43.0	11.9	7.3	-9.8	5.6	8.2
대 리 점	135.4	172.7	202.3	219.0	244.9	104.5
	10.4	27.5	17.2	8.3	11.8	7.2

주: 1) 각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4)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5)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모집인수
6)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Ⅳ. 보험산업 전망

1. 주요지표 전망

가. 수입보험료

○ FY2006 보험산업은 완만한 내수 회복과 연금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8.0%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보험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을 통한 경기 회복과 연금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하여 보험료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식시장 성장의 지속에 따른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 등의 성장과 소비자의 건강 관련 수요의 다변화로 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보험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수입보험료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금융시장 불안정, 영업비용 증가 압력 등이 예상되어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FY200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이 보편화되고 변액 및 유니버셜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FY2005 대비 8.4% 성장한 66.1조원을 기록할 전망임.

-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실제신계약비 이연 전환효과와 종신보험 표준신계약비의 예외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FY2006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확대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 구조의 지속이 예상되어 FY2005 대비 7.2%성장한 27.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의 수익성은 손해율의 안정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의 상승 추세가 전망됨.

<표 Ⅳ-1> FY2006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51.7 (10.5)	47.4 (-8.3)	49.1 (3.6)	50.4 (2.7)	53.8 (6.7)	61.0 (13.5)	66.1 (8.4)
손해보험	16.9 (13.8)	18.7 (10.9)	20.6 (10.3)	21.4 (3.7)	23.2 (8.6)	25.5 (9.7)	27.3 (7.2)
전 체	68.6 (11.3)	66.1 (-3.6)	69.7 (5.5)	71.8 (3.0)	77.0 (7.2)	86.5 (12.3)	93.4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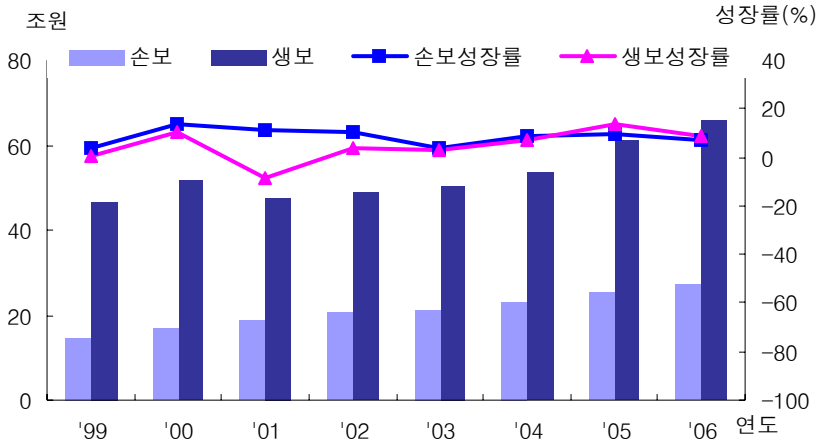
주: ( )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

○ FY2005 보험산업은 완만한 내수 회복과 연금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8.0%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산업은 종신보험의 성장률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단체보험도 퇴직보험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통합보험과 방카슈랑스로 인한 저축성 보험의 성장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일반손해보험 또한 성장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Ⅳ-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나. 보험침투도

○ FY2006 보험침투도[4]는 보험산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내수회복을 통한 경제회복 국면의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보험침투도는 10% 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침투도는 전년도보다 각각 0.1%p 증가한 7.6%, 3.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FY2005 보험침투도의 경우 생명보험은 7.5%, 손해보험은 3.1%,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2004에 비해 0.7%p 증가한 10.6%로 추정됨.

---

4)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냄. 2002년 이후의 GDP는 잠정치 또는 전망치임.

<표 Ⅳ-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9.9	8.6	8.2	7.0	6.9	7.5	7.6
손해보험	3.2	3.4	3.5	2.9	3.0	3.1	3.2
전 체	13.1	12.0	11.7	9.9	9.9	10.6	10.8

다. 1인당 보험료

○ FY2006의 국민 1인당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193만원 정도로 FY2005에 비해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생명보험료는 7.9% 증가하고 손해보험료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FY2005의 1인당보험료는 179만원 정도로 FY2004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Ⅳ-3>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1,099	1,001	1,030	1,053	1,118	1,263	1,363
손해보험	359	394	432	447	483	527	563
전 체	1,458	1,395	1,462	1,500	1,601	1,790	1,926

주: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를 사용함.

라. 생 · 손보 구성비

○ 생 · 손보 구성비(수입보험료 기준)는 전체 보험산업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Y2006에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 FY2006 구성비는 70.8% : 29.2%로 FY2005에 비해 생명보험의 비중이 0.3%p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Ⅳ-4> 생 · 손보 구성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75.4	71.7	70.4	70.2	69.8	70.5	70.8
손해보험	24.6	28.3	29.6	29.8	30.2	29.5	29.2

마. 총자산

○ FY2006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완만한 성장과 준비금 규모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 증가와 금융환경 불안으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의 상쇄 효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24조 2천억원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은 전년보다 13.0% 증가한 270조 7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53조 5천억원으로 전망됨.

<표 Ⅳ-5> FY2006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120.7 (9.5)	143.0 (18.5)	164.2 (14.8)	187.4 (14.1)	211.6 (12.9)	239.5 (13.2)	270.7 (13.0)
손해보험	28.1 (6.0)	32.7 (16.7)	35.4 (8.1)	38.8 (9.8)	43.4 (12.0)	49.2 (13.2)	53.5 (8.7)
전 체	148.8 (8.8)	175.7 (18.1)	199.6 (13.6)	226.2 (13.3)	255.0 (12.7)	288.7 (13.2)	324.2 (12.3)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전망

○ FY2006 생명보험시장은 전통 보험종목에 대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GDP가 증가하고 내수소비가 진작되는 등 내수경제의 회복이 반영되어 완만한 증가가 전망됨.

- 2006년은 내수부문이 회복이 되고 은퇴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가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 전망되나, 금융시장 활황에 따른 변액보험판매, 교차판매, 실손형 건강보험, 3차 방카슈랑스의 실시 및 퇴직연금제도의 확산 등이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임.

1) 수입보험료

○ FY2006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변액연금 등 생존보험의 성장과 단체보험의 시장 확대에 힘입어 FY2005 대비 8.4%의 완만한 성장을 한 66조 1,07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은퇴대비 수요의 증가와 함께 전통보험을 대체하면서 변액보험이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의 성장은 정체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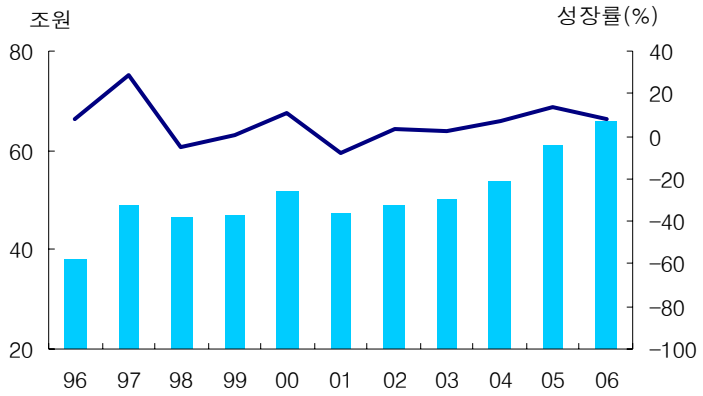
-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정되어 있고 실손보장형 건강보험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생존보장 니즈는 연금보험, DI보험 등 소득보장보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FY2005 개인보험 시장은 종신보험과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소폭 성장에 그친 반면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어온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에 편승한 변액보험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 단체보험도 퇴직보험에 대한 선수요와 퇴직연금신상품효과로 견조한 상승이 전망됨.

- FY2005의 보험시장은 민간소비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금리상승과 함께 주가도 급등하는 배경 하에 변액보험에 대한 열풍이 전통보험을 대체하고 단체퇴직시장의 신상품이 단체보험을 견인하여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그림 Ⅳ-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6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그동안 실제신계약비 이연에 따른 이익의 분산효과가 현실화되고, 종신보험에 대한 표준신계약비 예외조항 폐지가 적용되며, 변액보험에 대한 원가공개가 추진되는 등 RAAS 도입과 함께 순이익의 급격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리상승에 채권평가익 하락과 파생상품평가익 하락은 투자영업 이익을 저하시키고 감독당국의 사업비 인하유도 가능성에 따라 생명보험 산업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표 Ⅳ-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330,376	-0.7	133,529	-14.9	463,904	-5.2
FY1999	316,002	-4.3	151,473	13.4	467,554	0.8
FY2000	398,721	26.1	117,817	-22.2	516,538	10.5
FY2001	377,799	-5.2	95,844	-18.7	473,643	-8.3
FY2002	415,493	10.0	75,175	-21.6	490,668	3.6
FY2003	447,161	7.6	56,764	-24.5	503,925	2.7
FY2004	480,140	7.4	57,366	1.1	537,506	6.7
FY2005(E)	537,772	12.0	72,168	25.8	609,940	13.5
FY2006(F)	579,614	7.8	81,458	12.9	661,072	8.4

가) 개인보험

○ FY2006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내수회복에 따라 변액보험을 포함한 생존보험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8% 증가한 5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2005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시중자금의 간접투자시장으로 유입과 함께 변액연금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특히 변액유니버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53조 8천억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전통종신보험은 2005년 8월말 2.3%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정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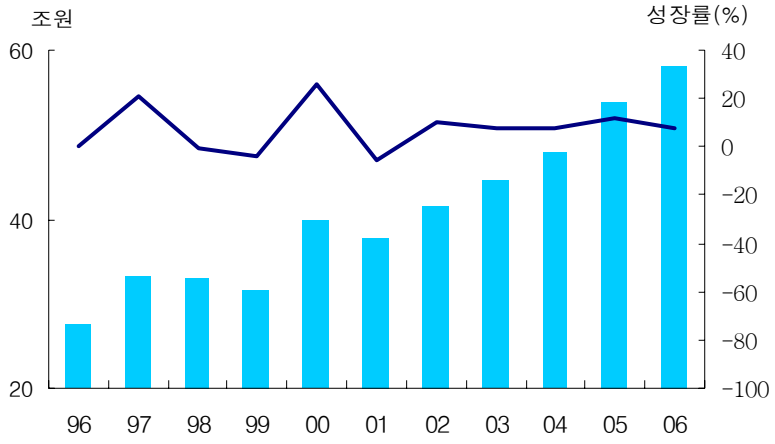
지속되고 건강관련 보험도 방카슈랑스 2단계 허용과 실손형 건강보험판매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은 성장률 둔화가 예측됨.

-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보험에서 사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IMF 체제가 시작된 FY1997 20.1% 수준에서 FY2004에는 54.8%까지 증가했던 것이 FY2005에는 52.8%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 지난 4월 순수보장성 제3보험이 금융기관대리점판매가 허용되었으나 6월까지 월평균 3,180억원이 거수되어 지난 분기(1~3월)에 비해 3.4% 증가에 불과했으나, 지난 동기에 비해선 52.7% 성장, 저축성 보험이 강세임.

- 또한 판매신장이 기대되었던 개인실손형 건강보험의 도입도 제도 미비와 수익성불안으로 도입이 늦어져 보장성 보험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림 Ⅳ-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표 Ⅳ-7>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102,113	-29.7	79,249	18.8	149,014	23.5	330,376	-0.7
FY1999	97,808	-4.2	100,461	26.8	117,813	-20.9	316,082	-4.3
FY2000	108,661	11.1	125,393	24.8	164,667	39.8	398,721	26.1
FY2001	74,955	-31.0	174,334	39.0	128,510	-22.0	377,799	-5.2
FY2002	91,424	22.0	213,677	22.6	110,392	-14.1	415,493	10.0
FY2003	120,375	31.7	231,844	8.5	94,942	-14.0	447,161	7.6
FY2004	131,368	9.1	262,971	13.4	85,801	-9.6	480,140	7.4
FY2005(E)	149,854	14.1	283,782	7.9	104,136	21.4	537,772	12.0
FY2006(F)	170,366	13.7	295,670	4.2	113,577	9.1	579,614	7.8

주: FY2002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1) 생존보험

○ FY2006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경기호전에 따라 증가된 연금보험 수요가 간접투자자산시장 확대와 맞물리면서 금년대비 13.7% 증가한 17조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 온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과 은퇴에 대비한 저축수요가 경기회복세와 함께 증가될 것이며 시중주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보험 등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한 연금보험판매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적립식 펀드의 열풍, 은행의 수익구조 다양화 노력 등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FY2005의 생존보험 실적은 전통 연금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 변액연금보험의 큰 폭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14.1% 성장한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4월초 955p였던 KOSPI 지수가 8월 1,102p로 146p 증가하면서 시중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르 급속히 유입되고 노후자금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몰리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수요도 증가시키고 있음.

2) 사망보험

○ FY2006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금년 대비 4.2% 성장하여 29조 6천억원대에 이르겠으나, 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2년 연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인 종신보험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지속되고 CI보험, 건강보험 등 기타 보장성 상품이 이를 대체하면서 사망보험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이 빠르게 연장되고 있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건강관련 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포화되고 있는 종신보험에서 CI보험 등의 질병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형 건강보험도 시판되면서 건강보험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나 공공건강보험의 보장률확대 정책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에는 불안요소가 존재함.

○ FY2005 사망보험은 전통적 종신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 CI보험 등

기타 보장성 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4-8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5.2%에 불과하나 기타 보장성보험이 성장하면서 전체 사망보험 성장률은 6.7%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함.

3) 생사혼합보험

○ FY2006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연장(10년)된 이후 뚜렷한 성장동력을 상실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저축성 수요를 대체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하면서 금년 대비 9.1% 성장한 11조 4천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은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의 연장전 가입분의 만기도래, 금리경쟁력 저하, 대부분 무배당으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유니버셜 등이 전통적 생사혼합보험의 투자메리트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성장에 따라 당분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 FY2005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유니버셜의 폭발적 증가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0조 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저축성보험에 대한 메리트 상실과 2001년 5년만기 계약분 보유계약의 만기도래 등의 영향으로 전통생사혼합보험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2003년 7월 판매되기 시작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주가상승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생사혼합보험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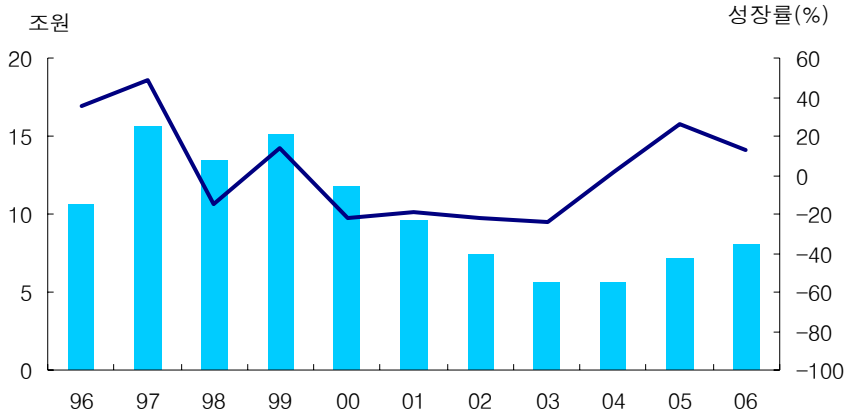
나) 단체보험

○ FY2006 단체보험시장은 퇴직연금제도가 정비되면서 퇴직연금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단체보험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복지수요의 회복으로 증가가 전망되나 FY2005보다는 상승률 하락이 예상됨.

- 2005년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 제도미비로 인한 부진을 벗어나고 퇴직보험은 신규판매가 중단되나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기업의 퇴직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2005년 경기의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복지성 보험수요가 살아나고 또한 공공부문의 일반단체보험 가입추세도 이어지고 소득보상보험 등 신상품의 성장 가능성도 있어 퇴직관련 상품의 성장과 함께 증가세가 전망됨.

<그림 Ⅳ-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5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5.8% 증가한 7조 2천억원 규모로 추정됨.

-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신탁)의 신규가입이 금지되고 퇴직연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의 마련이 늦어지고 보험회사들의 판매시기가 늦어지면서 12월 결산법인들의 퇴직연금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 실시에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퇴직보험가입을 서두르면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8월말 전년대비 103.0%증가)했으며, 3월 결산법인에 의한 퇴직연금의 신규가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지급보험금 전망

○ FY2006의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의 환급금이 증가하고 개인보험도 사망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0% 증가한 35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2005의 총지급보험금은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로 반전하고 단체보험도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8.1% 증가한 34조 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Ⅳ- 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264,082	-3.0	192,458	38.0	456,540	10.9
FY1999	215,870	-18.3	167,179	-13.1	383,049	-16.1
FY2000	224,551	4.0	167,919	0.4	392,471	2.5
FY2001	226,683	0.9	116,231	-30.8	342,914	-12.6
FY2002	212,197	-6.6	81,983	-29.5	294,180	-14.4
FY2003	255,554	20.4	61,840	-24.6	317,394	7.9
FY2004	267,067	4.5	49,159	-20.5	316,226	-0.4
FY2005(E)	292,372	9.5	49,592	0.9	341,964	8.1
FY2006(F)	299,794	2.5	55,950	12.8	355,74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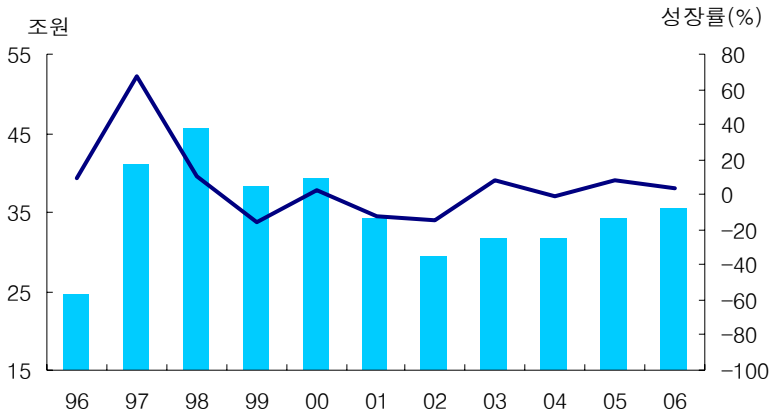
○ FY2006 개인보험부문의 총지급보험금 규모는 생사혼합보험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사망보험은 지급보험금증가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FY2005 대비 2.5% 증가한 30조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환급금 증가와 5년짜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FY2005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

-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도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금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겠으나 실효·해약이 감소함에 따라 FY2005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

- 생존보험의 경우 경기호전 및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의식 제고로 연금상품의 실효·해약률이 감소함에 따라 지급보험금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임.

<그림 Ⅳ-5>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 FY2005 개인보험 총지급보험금은 FY2005 지급보험금 증가에 대한 상대적 축소와 계약유지율 상승으로 지급보험금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2001년 1월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기 전 판매된 보험상품들의 만기도래에 의한 보험금지급이 증가할 것이나 변액보험 등의 신계약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

- 생존보험의 경우 은퇴수요에 의한 신계약증가와 유지율제고로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임.

<표 Ⅳ-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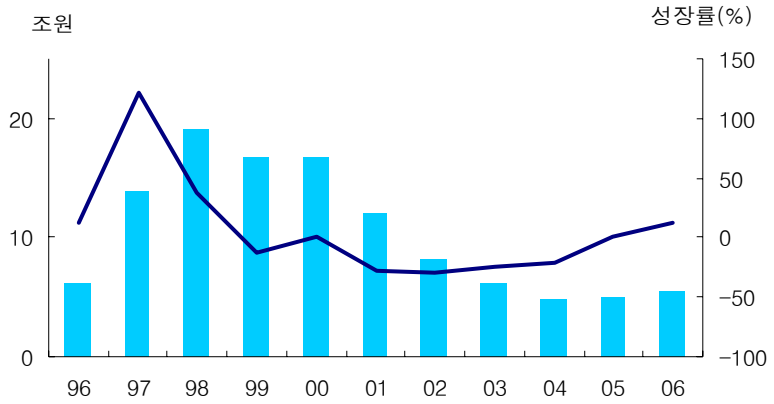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147,104	-25.3	29,879	70.9	87,099	50.4	264,082	-3.0
FY1999	75,019	-49.0	30,025	0.5	110,826	27.2	215,870	-18.3
FY2000	71,612	-4.5	36,040	20.0	116,898	5.5	224,551	4.0
FY2001	64,238	-10.3	46,263	28.4	116,182	-0.6	226,683	0.9
FY2002	52,623	-18.9	55,419	19.8	104,155	-10.4	212,197	-6.6
FY2003	60,712	15.4	74,666	34.7	120,177	15.4	255,554	20.4
FY2004	73,135	20.5	91,553	22.6	102,379	-14.8	267,067	4.5
FY2005(E)	76,772	5.0	100,052	9.3	115,547	12.9	292,372	9.5
FY2006(F)	77,089	0.4	103,731	3.7	118,975	3.0	299,794	2.5

○ FY2006 단체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체연금제의 조기정착이 늦어질 가능성을 내포함에 따라 환급금은 줄어들겠으나 퇴직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FY2005 대비 12.8% 증가한 5조 6천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5 단체보험 경우 퇴직연금제의 도입이 늦어지고 기업들이 퇴직연금가입을 관망하면서 퇴직보험의 유지율이 증가하면서 환급금감소로 총지급보험금은 FY2004 대비 0.9% 증가한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제의 후속제도정비가 늦어지고 보험사들의 판매일자가 지연됨에 따라 퇴직연금판매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퇴직보험에 대한 전환 및 해약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면서 단체보험환급금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그림 Ⅳ-6>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총지급보험금은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나 FY2006의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증가로 전년대비 2.3%p 개선된 5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5의 보험금지급률은 생사혼합보험의 환급금의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도 소폭 증가하겠으나 수입보험료증가로 전년대비 2.8%p 개선된 56.1%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Ⅳ-1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지급률	75.9	72.5	60.0	63.0	58.8	56.1	53.8

3. 손해보험

가. 개관

○ FY2006 손해보험 산업은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이 꾸준한 성장하여 전년 대비 7.2%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임.

- FY2005에도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등 전통 손해보험 종목에서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 및 특종보험에서는 성장률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1)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 FY2006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전년 대비 7.2% 성장하여 원수보험료 27조 2,9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의 둔화,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정비수가 체계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4%대의 성장이 예상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지속에 따라 보험료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며 사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자 사고율 증가, 보상한도 확대 및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대당 손해액 증가로 상승할 것임.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 등 상해, 질병 부문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가 예상되어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

로 전망됨.

· 손해율은 보장성 부문의 지급보험금 증가 및 저축성보험료 적립금 확대로 소폭 상승할 전망임.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 외에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에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임.

- 보증보험은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지속 및 보증보험회사의 인수 제한 등 언더라이팅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 성장은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임.

○ FY200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 확대로 9.7% 증가한 25조 4,707억원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부문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확대로 인한 급성장이 예상됨.

- 반면, 자동차보험은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제외한 종목에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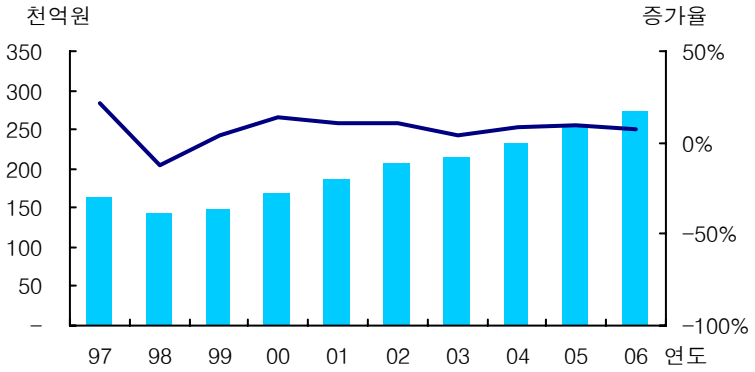
<표 Ⅳ-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보전체	168,617	186,959	206,129	213,783	232,189	254,707	272,930
	13.8	10.9	10.3	3.7	8.6	9.7	7.2
보증보험 제외	162,586	179,803	196,767	204,364	223,171	245,581	263,576
	14.2	10.6	9.4	3.9	9.2	10.0	7.3

주: 1) 해외원보험과 퇴직보험, 부수사업 실적 포함임.
2) 하단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2) 보험종목별 점유율

○ 보험종목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포함)이 50.5%, 자동차보험이 33.5%, 일반손해보험이 16.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크게 확대되고,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다소 축소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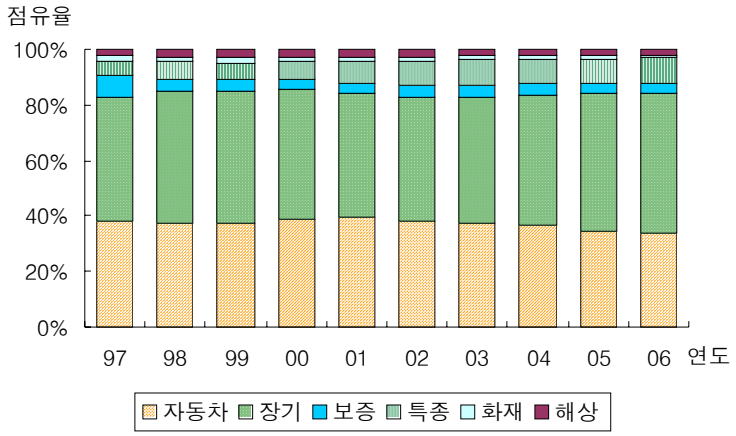
<표 Ⅳ-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일반	14.4	16.0	17.2	16.2	16.5	16.1	16.0
자동차	38.5	39.9	38.4	37.2	36.7	34.5	33.5
장기	47.1	44.1	44.4	46.5	46.8	49.4	5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일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장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이 포함됨.

<그림 Ⅳ-8>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나. 보험종목별 전망

1) 화재보험

○ FY2006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3,093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FY2005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가입 축소, 종합보험으로의 화재보험 수요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폭의 요율인상요인과 개별할인할증(SRP) 및 공지할인제도 재정비 등으로 5.5%의 성장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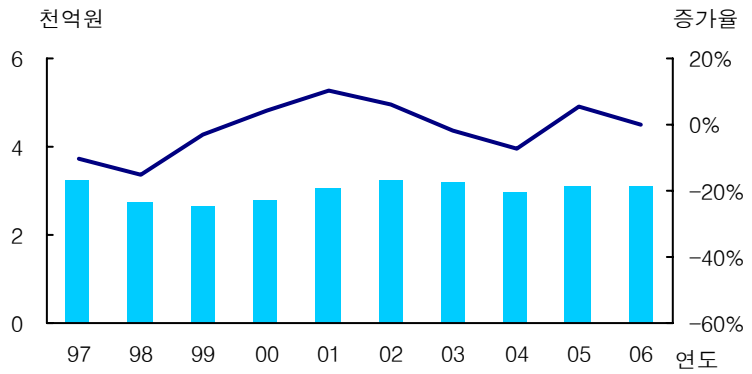
○ FY2006에는 일반 물건을 중심으로 요율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방카슈랑스 및 고객의 패키지화 선호 등에 따른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 건설 및 투자부문의 회복 불투명 등으로 화재보험 성장이 감소할 전망임.

<표 Ⅳ-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2,755	3,035	3,219	3,160	2,937	3,099	3,093
증가율	4.1	10.2	6.1	-1.8	-7.1	5.5	-0.2

<그림 Ⅳ-9>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화재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성장 확대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다소 개선된 46.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FY2006는 화재보험 성장이 정체될 전망으로 51.2%의 손해율이 전망됨.

- FY2005의 경우 5%대의 보험료 성장이 전망되나, 겨울철 화재발생을 감안할 때 2005년 4~8월간 손해율보다는 약간 상승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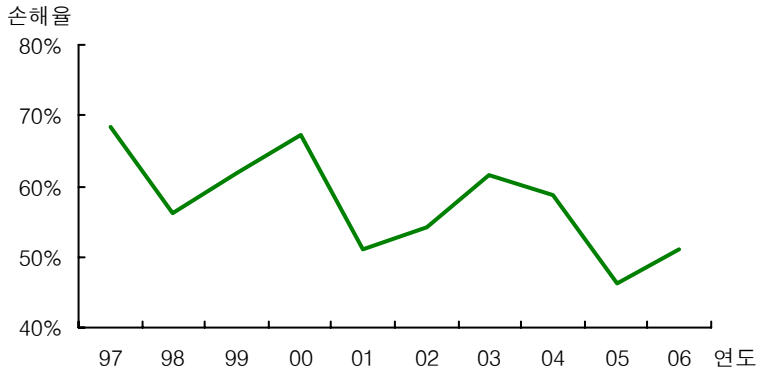
- FY2006에는 화재보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Y2005보다는 손해율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Ⅳ-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67.1	51.1	54.3	61.7	58.6	46.3	51.2

<그림 Ⅳ-10>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2) 해상보험

○ FY2006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1% 성장한 5,495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전년보다 5.1% 성장한 5,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FY2005 수출증가율 둔화세, 보험료율 인하 조정으로 적하보험 성장이 급감하고, 항공보험이 해외 부보율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 성장으로 5.1%의 성장률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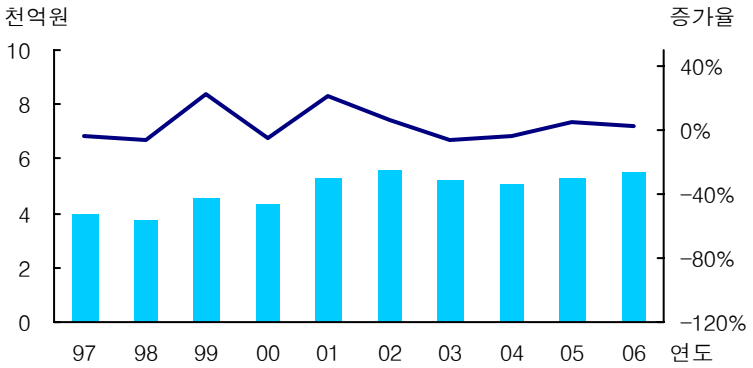
- FY2006에는 최근 해상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요율 인하조정, 수출증가율 정체 전망에 따라 FY2005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임.

<표 Ⅳ-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5(F)
원수보험료	4,344	5,292	5,605	5,242	5,071	5,330	5,495
증가율	-5.0	21.8	5.9	-6.5	-3.2	5.1	3.1

<그림 Ⅳ-11>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손해율은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성장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FY2006 해상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저성장세 전망에 따라 FY2005보다는 악화된 수준을 나타낼 전망임.

- FY2005 해상보험은 선박보험의 성장으로 전체 원수보험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FY2004에 비해 양호한 47.3%의 손해율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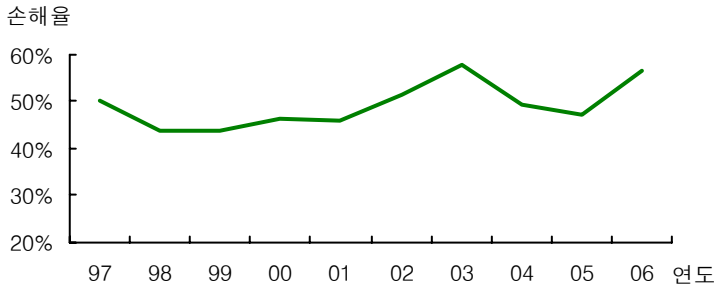
- FY2006은 적하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하여 전체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6.7%의 손해율이 전망됨.

<표 Ⅳ-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46.4	46.0	51.6	57.7	49.5	47.3	56.7

<그림 Ⅳ-12>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



가) 적하보험

○ FY2006 적하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5% 성장한 2,225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는 -2.8% 성장한 2,306원으로 추정됨.

- FY2005의 경우 적하보험 요율 인하와 FY2004 30%대를 기록하였던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적하보험 보험료 수입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도 적하보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전년 수준에서 큰 변화가 기대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료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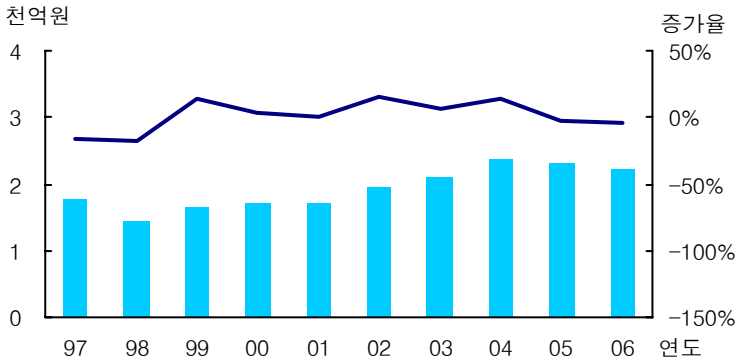
<표 Ⅳ-17>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704	1,704	1,963	2,096	2,373	2,306	2,225
증가율	3.3	0.0	15.3	6.8	13.2	-2.8	-3.5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Ⅳ-13>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나) 선박보험

○ FY2006 선박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431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의 경우 19.3% 증가한 2,205억원으로 추정됨.

- FY2005 선박보험 기본보험료가 7% 정도 인상되고, 최근 보험 가입물건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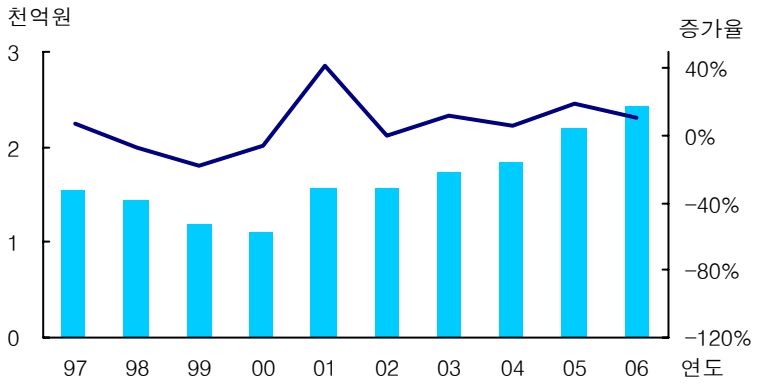
<표 Ⅳ-18>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112	1,572	1,566	1,744	1,848	2,205	2,431
증가율	-6.4	41.4	-0.4	11.4	6.0	19.3	10.2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Ⅳ-14>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다) 항공보험

○ FY2006 항공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640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는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률이 예상됨.

- FY2005 항공보험은 해외재보험시장의 연성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물건의 해외 부보율이 증가함에 기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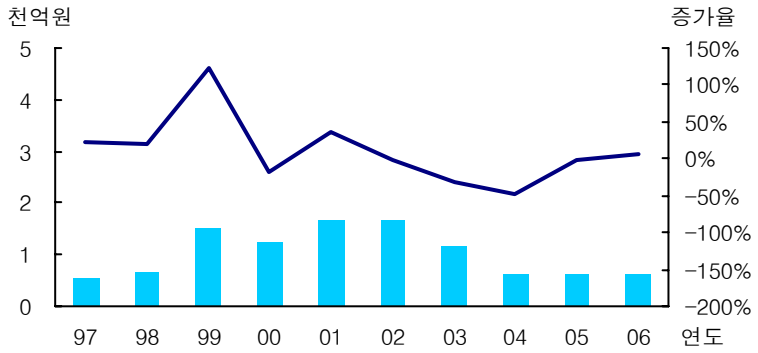
<표 Ⅳ-19>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223	1,677	1,666	1,155	615	608	640
증가율	-18.1	37.1	-0.7	-30.7	-46.8	-1.0	5.1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Ⅳ-15>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3) 자동차보험

○ FY200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1% 성장한 9조 1,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0% 성장한 8조 7,764억원으로 추정됨.

- FY2005 자동차보험 성장률은 내수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정체,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비수가 요금체계 개선 효과로 인하여 3%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11월부터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으로 회사별로 평균 3.5%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음.

- FY2006 자동차보험은 FY2005 성장을 약간 상회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임.

· 최근 교통법규 위반 사면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요율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 지속 전망 등은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내수회복 및 2006년 특소세 인하조치 환원으로 인한 신차판매 증가, 차량의 고급화, 2005년 11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요율인상 등으로 4.1%의 성장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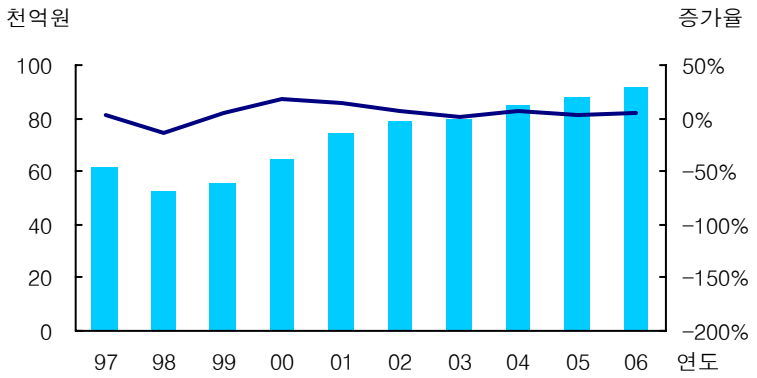
<표 Ⅳ-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책임보험	보험료	23,553	27,508	28,230	27,544	30,210	31,595	33,073
	증가율	11.1	16.8	2.6	-2.4	9.7	4.6	4.7
임의보험	보험료	41,430	47,093	50,908	52,062	54,998	56,169	58,290
	증가율	21.3	13.7	8.1	2.2	5.6	2.1	3.8
합계	보험료	64,983	74,601	79,138	79,606	85,208	87,764	91,364
	증가율	17.4	14.8	6.1	0.6	7.0	3.0	4.1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1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하였음.

<그림 Ⅳ-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율 증가, 보험료 성장 둔화로 인하여 FY2004보다 다소 상승한 73.5%, FY2006에는 75.1%의 손해율이 전망됨.

- FY2005 손해율은 교통법규 위반 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 원수보험료 저성장에 기인하여 FY2004보다 악화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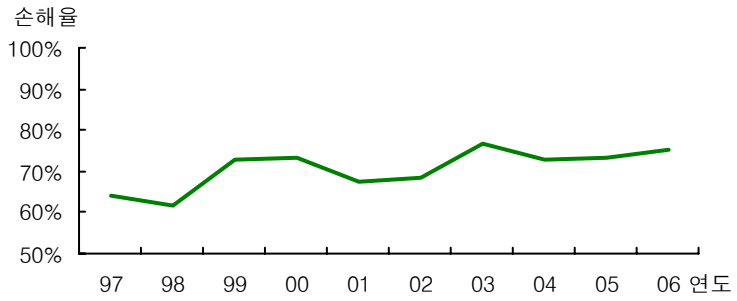
- FY2006에는 정비수가체제 개선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지속으로 보험료 성장둔화가 전망되고, 보상한도 확대 및 차량의 고급화 등으로 대당 손해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손해율은 75.1%로 상승할 전망임.

<표 Ⅳ-21>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73.2	67.6	68.4	76.7	72.7	73.5	75.1

<그림 Ⅳ-17>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4) 보증보험

○ FY2006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2.5% 성장한 9,354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1.2% 증가한 9,126억원으로 추정됨.

- FY2005 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등에서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FY2002까지 급증하였던 신용카드 신용보험 성장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1.2%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

- FY2006에도 신용보험 및 대출관련 보증보험에서의 성장 둔화와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보증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에 따른 인수 제한 등으로 보증보험 성장률은 크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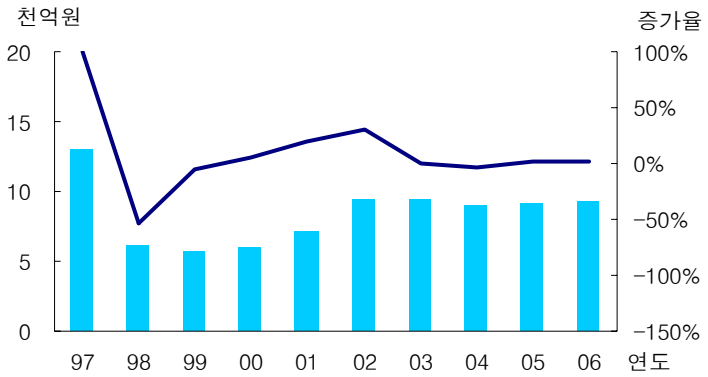
  · 반면, 2005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회복세로 보증보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Ⅳ-22>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6,021	7,156	9,362	9,419	9,018	9,126	9,354
증가율	4.9	18.9	30.8	0.6	-4.3	1.2	2.5

<그림 Ⅳ-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보증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성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성 보증의 공급을 축소하고 이행성보증 판매를 확대하는 등 보험인수물건을 제한하는 언더라이팅 정책으로 25.7%의 양호한 수준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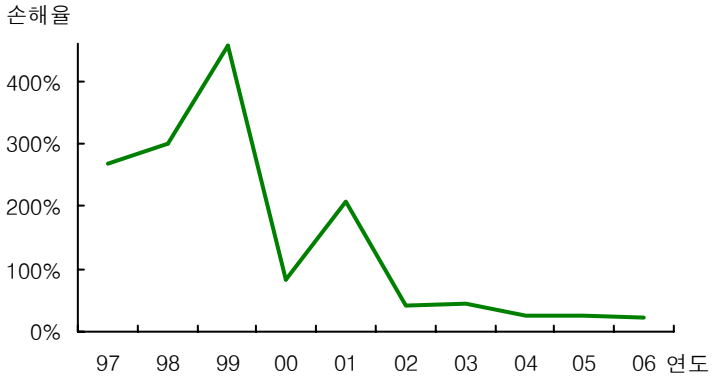
○ FY2006에도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등으로 보험료 성장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손해율은 23.1% 수준으로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Ⅳ-23>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79.5	208.3	42.0	44.1	25.3	25.7	23.1

<그림 Ⅳ-19>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5) 특종보험

○ FY2006 특종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9.3% 증가한 2조 5,720억원으로 기술, 책임, 상해, 종합보험 등 특종보험 시장 전 종목에서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됨.

- 특종보험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종합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의 수요 이전,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전망임.

- 기술보험의 경우,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부문의 회복세 전환 전망이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에서 과거 손해율 개선에 따른 요율인하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FY2005보다 다소 성장이 감소할 것임.

○ FY2005 원수보험료는 소비둔화, 투자부진에도 불구, 상해보험에서의 높은 성장과 방카슈랑스로 인한 종합보험 확대 등으로 11.1% 증가한 2조 3,532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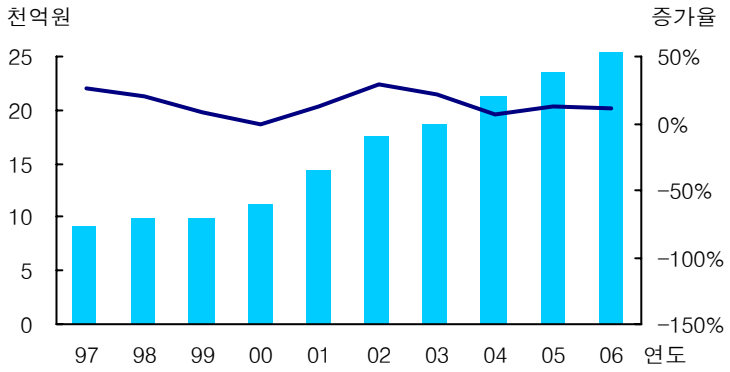
<표 Ⅳ-24>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1,143	14,430	17,484	18,740	21,818	23,532	25,720
증가율	13.1	29.5	21.2	7.2	13.0	11.1	9.3

주: FY1998～FY2000은 해외원보험, FY2001 이후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포함 실적임.

<그림 Ⅳ-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특종보험 손해율은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른 원수보험료 성장 전망으로 46.3%의 손해율을 나타낼 전망임.

- FY2006에는 종합보험, 상해보험 중심으로 보험료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형 재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40.5%의 양호한 손해율을 보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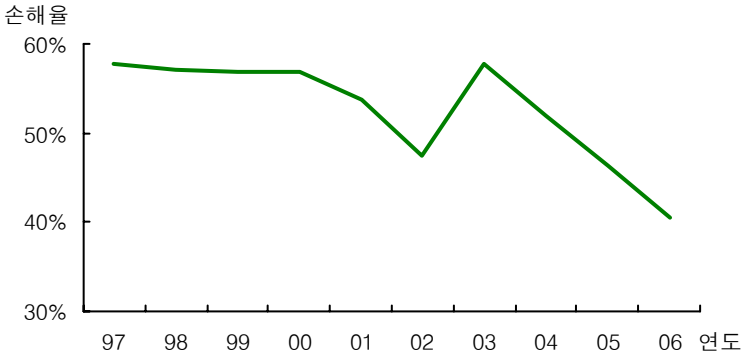
- 단,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 특종보험 일부 종목에서의 보험료 인하요인 발생 등 손해율 상승요인도 내재되어 있음.

<표 Ⅳ-25>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56.8	53.8	47.5	57.8	52.0	46.3	40.5

<그림 Ⅳ-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가) 기술보험

○ FY2005 기술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8% 성장한 3,184억원으로 추정되며, FY2006에는 13.7% 성장한 3,620억원으로 당분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Y2005에는 민자사업의 확대로 대형 공사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공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기술보험 전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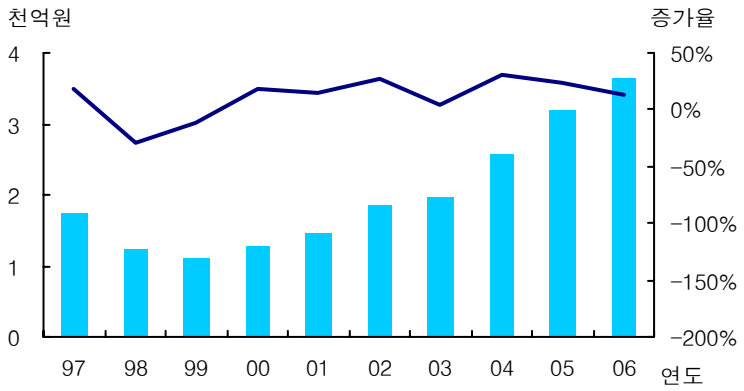
- FY2006에도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가 2005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건설투자 증가율 확대 전망으로 기술보험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표 Ⅳ-26>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277	1,473	1,872	1,962	2,572	3,184	3,620
증가율	17.6	15.3	27.1	4.8	31.1	23.8	13.7

<그림 Ⅳ-22>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나) 배상책임보험

○ FY2006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4% 성장한 5,554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5% 성장한 5,269억원으로 전망됨.

- FY2005에는 2005년 1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임원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전년대비 0.5%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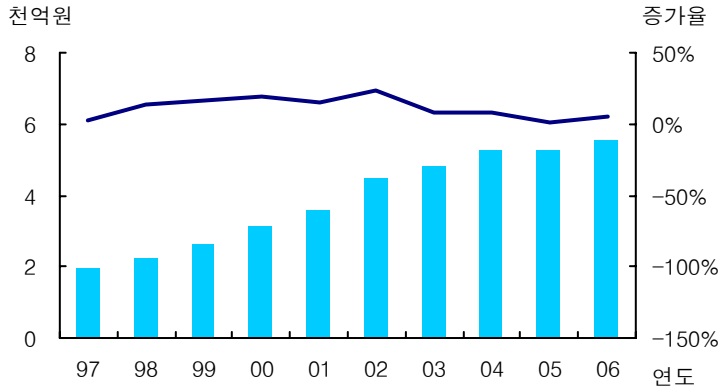
- FY2006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투자부문의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어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소폭 증가한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Ⅳ-27>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3,131	3,602	4,468	4,835	5,243	5,269	5,554
증가율	19.6	15.0	24.0	8.2	8.4	0.5	5.4

<그림 Ⅳ-23>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다) 상해보험

○ FY2006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849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전년 대비 47.6% 급성장한 4,15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FY2005 상해보험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른 수요 창출과 함께 기업들의 단체 가입 확대 등 다양한 성장 요인으로 인하여 47.6%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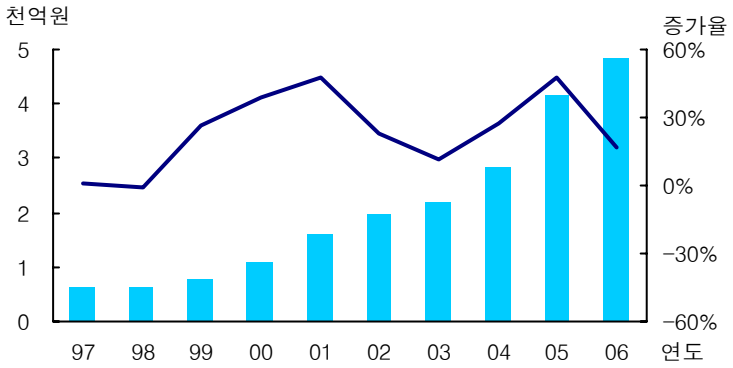
- 상해보험의 성장 기조는 FY2006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FY2005년 급성장에 따른 상대적 효과로 성장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Ⅳ-28>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097	1,623	1,991	2,216	2,818	4,159	4,849
증가율	39.0	47.9	22.7	11.3	27.2	47.6	16.6

<그림 Ⅳ-24>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라) 종합보험

○ FY2006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1조 30억원에 달할 것으로전망되며, FY2005에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9,436억원으로 추정됨.

- FY2005 종합보험은 증가하는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고,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기업성 종합보험 시장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5.1%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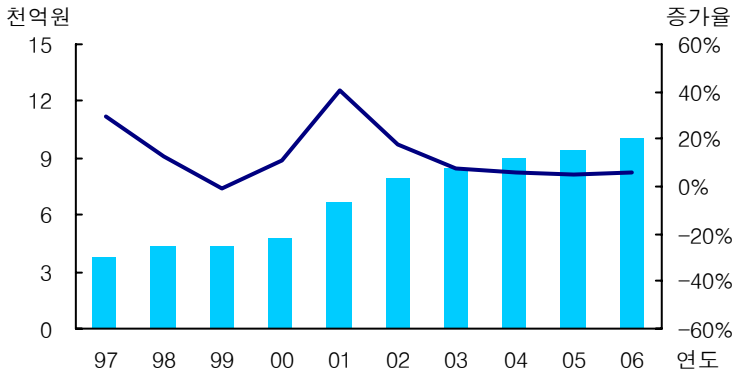
- FY2006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에서의 수요가 이전되는 등 재물성 종합보험 성장이 지속되고,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보험가입의 확대로 종합보험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임.

<표 Ⅳ-29>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4,763	6,701	7,874	8,477	8,977	9,436	10,030
증가율	10.9	40.7	17.5	7.7	5.9	5.1	6.3

<그림 Ⅳ-25>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6) 장기손해보험

○ FY200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12조 1,512억원, FY2005에는 14.6% 성장한 11조 393억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5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부문에 대한 수요지속과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로 1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전망이 장기손해보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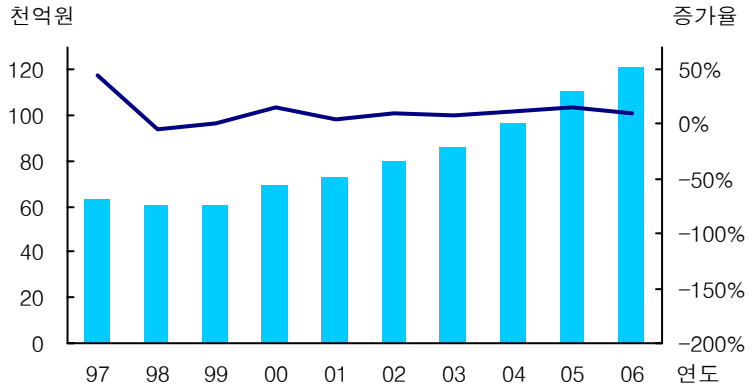
  · 통합형보험, CI보험을 중심으로 한 상해 및 질병부문의 꾸준한 확대가 예상되고, 저축성보험의 신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표 Ⅳ-3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69,392	72,882	80,134	85,794	96,353	110,393	121,645
증가율	15.1	5.0	10.0	7.1	12.3	14.6	10.2

<그림 Ⅳ-2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 지속 성장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부문 가입확대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와 저축성보험 판매에 따른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확대로 86.3%의 손해율이 전망됨.

○ FY2006에는 보장성 부문의 보험금 지급과 저축성보험료 적립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전망에 따라 손해율은 88.2%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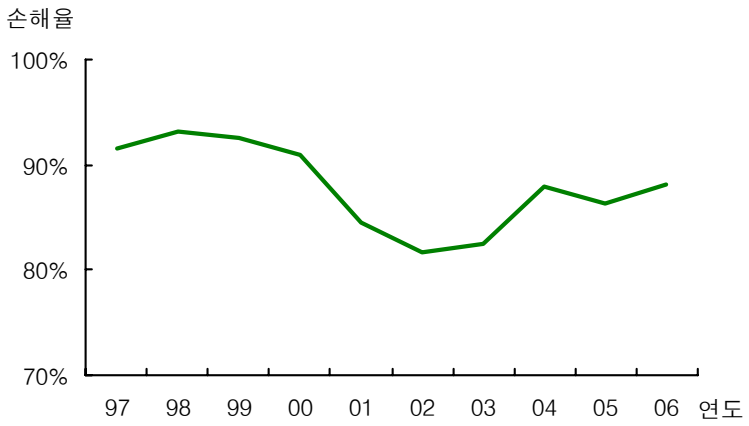
<표 Ⅳ-31>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90.9	84.4	81.6	82.4	87.9	86.3	88.2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Ⅳ-27>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7)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퇴직연금)

○ FY2006 개인연금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6,331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3.5% 증가한 6,561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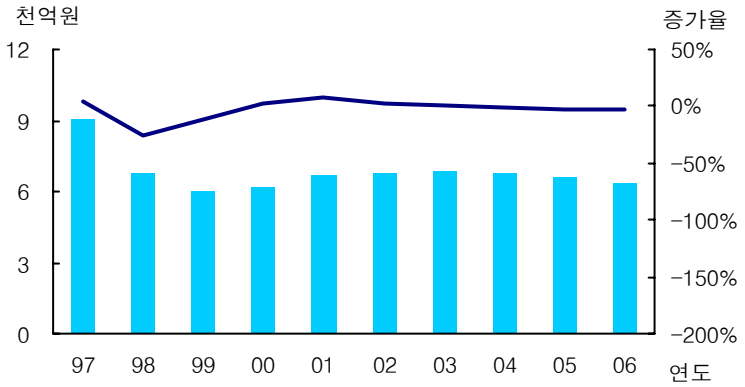
-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단기성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한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개인연금보험의 성장은 향후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Ⅳ-3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6,157	6,678	6,786	6,873	6,799	6,561	6,331
증가율	1.9	8.5	1.6	1.3	-1.1	-3.5	-3.5

<그림 Ⅳ-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조 62억원의 원수보험료가 전망되며, FY2005는 전년 대비 58.3% 증가한 8,902억원이 예상됨.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퇴직보험의 보험료 이전과 더불어 신규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초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손해보험의 점유율은 크게 전망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표 Ⅳ-33>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3,823	2,865	4,401	4,949	5,622	8,902	10,062
증가율	5.5	-25.1	53.6	12.5	13.6	58.3	13.0

Ⅴ. 보험산업 주요과제

○ 본 장에서는 FY2006 보험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 뒤 퇴직연금, 민영건강보험, 변액보험 및 다변화되고 있는 판매채널 측면에서의 보험회사들의 전략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함.

1. FY2006 보험산업의 특징과 평가

가. 시장 성장 측면

○ FY2006 보험산업은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목별 변화의 경우 상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FY2005 이후 보험산업의 성장은 전체적으로 은퇴수요에 크게 의존하면서 종목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투자형 보험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FY2006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까지 크게 증가할 경우 주로 특별계정의 종목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고 저축성보험을 포함하는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전통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과 중첩되는 제3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반면,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전통손해보험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채 장기간 침체 국면을 지속할 전망임.

○ FY2006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변액보험, 연금, 장기손해보험 등은 보험회사의 재무 및 마케팅 여건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의 급속한 팽창은 생명보험회사를 주식 가격의 변동 등 자본시장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적립식 펀드 등 타금융권 상품과의 경쟁을 유발하는 등 경영 여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상품의 복잡성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관계로 향후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점도 위기요인이 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는 생명보험의 영역과 중첩되는 제3보험의 성격이 강해 향후 생·손보 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국민건강보험관련 정책, 의료기술 및 환경변화 등에 상품의 시장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나. 제도적 환경 측면

○ 2006년 보험산업의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보험회사 신탁업 겸영 허용 등 성장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통합화 가속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소비자 보호가 중시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적인 보험 영역에 타 금융업종의 진출이 가속화되는 반면, 보험산업도 타업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광범위한 금융시장 내에서 자유 경쟁을 하는 시대로 진입해가고 있음.

- 건전성 감독의 강화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확한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 연금 및 건

강보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시장의 통합화와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는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갈 것임을 의미함.

- 보험시장의 경쟁이 타업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보험산업내 생손보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향후 적자생존의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이 상품개발, 운용 능력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크게 요구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업계 상호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온라인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대형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소형사의 성장성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판매채널의 통합화 및 다변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경우 마케팅 환경이 크게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로 보험회사들은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관리 능력을 확보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

2. 주요과제

가. 퇴직연금시장 진출

○ 퇴직연금시장은 도입 초기에 있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의 이미지 관리 및 마케팅 전략이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중심의 마케팅이 유리할 것이며 자산 부채 관리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전략이 요구됨.

1)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미지 관리

○ 변액보험관련 제도 개선, 리스크 기준 감독 강화 등 2006년에 예정된 제도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도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사실상 단체변액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퇴직연금 성공에 매우 중요함.
  - · 높은 수익률보다도 보험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관리자로서 적합하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 변화하는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

· 재무건전성에 대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도 전체 보험업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유사 상품 취급 기관으로서의 이점 활용

○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인 만큼 관련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성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마케팅 등 개인 연금 및 종신형 상품을 취급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최대한 살려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야 할 것임.

- 고객의 유지와 보험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들의 경험은 타금융권에 비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퇴직금 관련 보험시장(퇴직보험, 퇴직신탁)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점유율은 약 7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상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가 마케팅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할 것임.

- 기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계약전환 시 다양한 편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유지 전략이 필요함.

3) 적절한 컨소시엄 활용

○ 계약자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타업종 금융기관과 적절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될 것임.

- 중소형사의 경우 장기보험상품 취급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나 은행 등과 제휴함으로써 부족한 경쟁력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변액보험시장의 성공적 정착

○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의 호황과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금융시장 불안시 보험회사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변액보험의 매력감소에 의한 신계약의 축소뿐만 아니라 수익률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변액보험구매자들의 해약 및 민원제기 가능성이 상존함.
- 따라서 증권시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계약의 해약을 방지하여 기존 계약유지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연착륙 기반의 마련이 긴요함.

1) 변액보험판매와 성과의 공시강화

○ 변액보험의 주요 장점은 계약자가 직접투자펀드를 선택하고 투자결과에 책임을 지는 데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 요인은 투자펀드운영의 투명성에 있음.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고객들에게 반드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사업내용설명서(Prospectus)를 숙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 계약자들의 투자욕구를 만족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목적과 전략, 잠재적 투자위험, 과거 실적을 판매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잠재계약자와 기존계약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2) 상품다양화와 보험기능강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긴 하지만 기본은 보험상품이며 보험소비

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마련을 위해 개발된 상품임.

-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최소한 납입보험료만큼의 안정적인 보장을 원하는 것과 동시에 초과수익 달성을 기대하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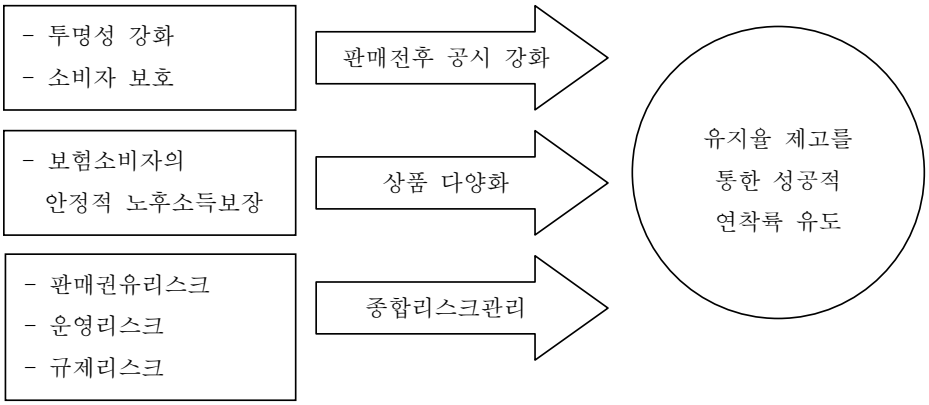
- 소비자의 복잡한 성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럽처럼 원금보장형 변액보험에서부터 보다 공격적인 상품까지 최소 보증보험금조정, 펀드투자옵션, 특약 등을 활용한 융통성 있는 설계가 필요함.

3)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변액보험의 관리상의 리스크는 판매자불완전판매(보험설계사), 운용회사의 잘못된 선정 또는 부실운영(보험회사), 운용의 부당행위감시 소홀(보험회사, 수탁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와 운영상의 부실은 서구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서 판매 전 및 판매 후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그림 Ⅴ-1> 변액보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관리방향



다.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1) 기본전략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에 합리적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사망경험통계는 집적이 잘 되어 있으나, 질병 관련 통계는 집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는 질병통계의 집적에 노력하여야 함.

○ 건강보험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의료공급자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하여야 함.

2) 전략적 과제

가) 제도적 과제

○ 민영건강보험상품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은 물론, 보험계약 청약시의 고지사항과 보험금 지급시 지급사유 위주로 이루어진 의료정보가 보험회사간에 공유되도록 함.

○ 건강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진행・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10월 이후 보험료는 실손보상에 맞추어 조정되었으나, 사실상 중복가입과 중복보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의료비 비례보상 조회시스템을 원만히 운용하도록 함.

-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달라 비례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손보장보험상품의 표준화도 병행함.

○ 민영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의 최소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기구 설립이 필요함.

나) 보험회사의 과제

○ 생존급부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른 반복급부와 증가된 불확실성에 대응한 헤지 기법 도입이 필요함.

-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불확실한 추세를 보이는 생존

급부 위험률에 대비하여 실손보험을 포함한 장기 보증상품들을 위험률 자동갱신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액형 건강보험 설계시 지나친 고액급부를 지양하고 통상적인 환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부를 제한하여야 함.

○ 실손보험의 경우 공제금액(deductible)과 공동보험(co-insurance) 설정으로 최소한의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보상한도 복원을 제한하여 과잉의료수요를 방지할 수 있는 상품 설계가 필요함.

○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확대가 예상되어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성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므로 상품설계 시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 보험계약 측면에서의 과제

○ 지나친 고액상품설계는 언더라이팅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삭감한다고 해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역선택을 유인하므로 지양되어야 함.

○ 정액보험 언더라이팅 시에도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에 비해 과도한 일당급부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험선별기능 강화를 위한 판매체제 강화와 계약심사 기준의 강화가 필요함.

라) 보험금 지급 측면에서의 과제

○ 정액급부보험에서 경증질병에도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에 대비 반복급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함.

○ 의료서비스 과잉수요를 허용 또는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공급자의 과잉의료공급은 실손보험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서비스공급자가 민영건강보험 환자임을 사전 인지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을 유도할 개연성이 큼.

-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의료공급자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를 추후 보상해주는 간접 지급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의료공급자의 의료과잉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200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노력이 필요함.

라. 판매채널 효율성 제고

1) 정보비대칭의 축소

○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상품 출현에 따라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임.

-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증가하는 사업

비는 소비자권익에 해롭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중소형 보험회사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 교육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 계층에 마케팅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익성 창출과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유한 여러 판매채널의 전문성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사 수익증권 판매권유시 부작용 최소화

○ 보험회사 입장에서 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권유 허용이 판매수수료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설계사가 다양한 펀드상품의 전문지식을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익증권 판매권유시 설명할 내용을 사전에 정형화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

- 설계사 입장에서 수익증권 판매권유는 부차적인 소득원이 되고 고유의 보험상품 판매가 주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교차판매의 부작용 최소화

○ 교차판매의 허용에 따라 비전속 설계사에 의해 판매되는 불완전판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됨.

- 보험회사들은 자사 상품의 성격에 따라 교차판매 허용대상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비전속 설계사에 의해 교차판매된 상품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함.
- 비전속 설계사에 의한 불완전판매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판매권유 행위에 대한 녹취, 기록 등을 활용한 리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비전속 설계사로부터 발생한 판매에서 일정 횟수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 등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부록> 보험산업 주요 전망치 요약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4	FY2005(E)	FY2006(F)
수입보험료(억원,성장률)			
- 생명보험	537,506(6.7%)	609,940(13.5%)	661,072(8.4%)
- 손해보험	232,173(8.6%)	254,706(9.7%)	272,929(7.2%)
- 전 체	769,679(7.2%)	864,646(12.3%)	934,001(8.0%)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6.9	7.5	7.6
- 손해보험	3.0	3.1	3.2
- 전 체	9.9	10.6	10.8
1인당보험료(천원)			
- 생명보험	1,118	1,263	1,363
- 손해보험	483	527	563
- 전 체	1,601	1,790	1,926
생손보 구성비(%)	69.8 : 30.2	70.5 : 29.5	70.8 : 29.2
총자산(조원)			
- 생명보험	211.6(12.9%)	239.5(13.2%)	270.7(13.0%)
- 손해보험	43.4(12.0%)	49.2(13.2%)	53.5(8.7%)
- 전 체	255.0(12.7%)	288.7(13.2%)	324.2(12.3%)

주: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괄호안 숫자는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
3)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생 존	120,375	31.7	131,368	9.1	149,854	14.1	170,366	13.7
	사 망	231,844	8.5	262,971	13.4	283,782	7.9	295,670	4.2
	생 사	94,942	-14.0	85,801	-9.6	104,136	21.4	113,577	9.1
	소 계	447,161	7.6	480,140	7.4	537,772	12.0	579,614	7.8
	단 체	56,764	-24.5	57,366	1.1	72,168	25.8	81,458	12.9
	합 계	503,925	2.7	537,506	6.7	609,940	13.5	661,072	8.4
손해보험	화 재	3,160	-1.8	2,937	-7.1	3,099	5.5	3,093	-0.2
	해 상	5,242	-6.5	5,071	-3.2	5,330	5.1	5,495	3.1
	- 선박	1,744	11.4	1,848	6.0	2,205	19.3	2,431	10.2
	- 적하	2,096	6.8	2,373	13.2	2,306	-2.8	2,225	-3.5
	- 항공	1,155	-30.7	615	-46.8	609	-1.0	640	5.1
	자동차	79,606	0.6	85,208	7.0	87,764	3.0	91,363	4.1
	- 책임	27,544	-2.4	30,210	9.7	31,595	4.6	33,073	4.7
	- 임의	52,062	2.3	54,998	5.6	56,169	2.1	58,290	3.8
	보 증	9,419	0.6	9,018	-4.3	9,126	1.2	9,354	2.5
	특 종	18,740	7.2	21,181	13.0	23,532	11.1	25,720	9.3
	- 기술	1,962	4.8	2,572	31.1	3,184	23.8	3,620	13.7
	- 책임	4,835	8.2	5,243	8.4	5,269	0.5	5,554	5.4
	- 상해	2,216	11.3	2,818	27.2	4,159	47.6	4,849	16.6
	- 종합	8,477	7.7	8,977	5.9	9,436	5.1	10,030	6.3
	장 기	85,794	7.1	96,353	12.3	110,393	14.6	121,512	10.1
	개 인	6,873	1.3	6,799	-1.1	6,561	-3.5	6,331	-3.5
	퇴 직	4,949	12.5	5,622	13.6	8,902	58.3	10,062	13.0
	합 계	213,783	3.7	232,189	8.6	254,707	9.7	272,930	7.2

주: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경제지표	CY2003	CY2004	CY2005(E)	CY2006(F)
실질GDP	3.1	4.6	3.9	4.6
민간소비	-1.4	-0.5	3.1	4.4
설비투자	-1.5	3.8	4.4	6.2
건설투자	7.6	1.1	0.1	2.2
경상수지(US$억)	123.2	276.1	148.3	87.9
소비자물가(연평균)	3.6	3.6	2.7	3.3
국고채(3년)(연평균)	4.6	4.1	4.2	5.5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박홍민,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신동현,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이태열 2004.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2005-1	보험산업의 비젼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Ⅱ)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Ⅲ)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회, 1999.1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3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회남, 2002.4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영문발간물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CEO Report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6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저자약력

이 태 열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
(E-mail : tylee@kidi.or.kr)

최 영 목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부연구위원
(E-mail : ymchoi@kidi.or.kr)

조 혜 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E-mail : hwcho@kidi.or.kr)

김 진 억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E-mail : kjo990@kid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연구원
(E-mail : kinowon@kidi.or.kr)

정책연구자료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 행 일 2005년 11월 일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ISBN 89-5710-031-8 94320 정가 10,000원